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發 行 人 金 在 淳
編 輯 人 鄭 宗 澤
印 刷 人 金 暎 宰

發 行 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22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1월 1일

■ 南惠淑 作 (작품 설명 3면)

관악춘추

새해를 내다보며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의 심정으로 새해의 앞 일을 더듬어 본다. 우선 가장 큰 우리의 관심거리는 아무래도 대선이 된다. 이번의 대선을 어떻게 치르는가는 우리의 21세기의 명운과 직결된다. 새해를 기해 우리의 정치풍토도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면서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경제발전도 이제는 건곤일척의 새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누적된 경기침체도 새해에는 말끔히 가셔져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지금 온국민 사이에 퍼져있다. 이러한 국민적 위기감은 국민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살려나가는가는 국민의 성숙된 슬기이다. 단순한 의욕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끝으로 문화의 측면을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의 준비태세가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창달은 외형적인 행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몇가지 측면을 더듬어 보게 되면 새해에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용솟음친다. 우리 22만 동문은 모두가 이 나라의 동량이다. 새해에 잘된 일, 못된 일도 모두가 우리 동문이 그 책임을 져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새해에 우리 동문이 지녀야할 과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지난해를 통해서 우리 총동창회는 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다짐했다. 그동안 대내적인 일에 몰두하느라고 이렇다할 사회적 참여활동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새해는 우리 동문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슬기로운 지성을 과거의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2만 동문의 새해의 건승을 더욱 축원한다.

(榮)

만든사람·논설위원: 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崔靑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東和, 李炯均, 宋鎭赫,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편집주간:** 李世震 **기자:** 安興燮, 金志妍

회장 신년사

"내일 위한 지혜와 용기 모을 때"

경애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丁丑年 새해를 맞이하신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희망과 의욕에 가득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22만 동문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커다란 발전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개교 50주년의 뜻깊은 한 해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많은 생각과 의미를 던져준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반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겨냥해야할 무대는 한반도가 아닌 전세계이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서울대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니고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들의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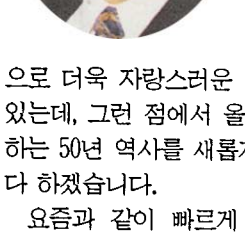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서울대인답게 자기하는 일을 통해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구현하는 도덕적 책임을 자각합시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의 은총과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총장 신년사

"넓은 시각으로 미래 대비해야"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평범한 날을 맞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이는 작년으로 개교 50주년을 맞았던 서울대학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는 지난 5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각오를 다진 바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제2의 웅비를 기약하는 50년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된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좀 더 큰 시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올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위기를 딛고 새롭게 발전한 축복의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는 후세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해의 계획을 설계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총장 鮮于仲皓

"조국과 모교를 생각하는 시간 갖자" 金회장

「송년모임」 통해 화합의 한마당 이뤄

朴美惠동문의 열창에 참석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재단법인 관악회 제70차 이사회에서 97년 예산을 심의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1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96년도 「송년모임」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재단법인 관악회 제70차 이사회를 겸해 열린 이날 모임에는 金在淳회장을 비롯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 河永基, 具平會, 李聖秀, 李達雨, 張翼龍, 李金器, 李相禹, 尹世榮, 許鎭奎, 尹永錫, 卞柱仙, 金鍾振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관악회 金道昶, 李乃均, 許浚, 洪性大, 李弘中이사, 孫一根, 林炯斗, 李炯均본보 논설위원, 李仁子, 楊銀淑, 鄭晳圭, 朴振煥, 李信子, 李奭熙, 閔丙畯, 尹志炳, 李禮植, 李誠載, 金讚淑, 李光魯, 李燦河, 李濟薰, 姜敏求상임이사, 吳熙弼충남지부회장, 金明俊천안지부회장, 吳炳文광주지부회장, 金石基울산지부회장, 姜奎錫영동지부회장, 宋斗灝부산지부회장 등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모교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洪承五대학원장 등 보직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金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생각과 의미를 던져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언제, 어느 곳에 서든지 조국과 모교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자』고 역설했다.

鮮于총장은 인사말에서 『세계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앞으로 50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尹天柱전임총장의 건배제의에 이어 서울시립대 교수인 朴美惠동문이 특별출연해 李成均모교 음대학장의 피아노 반주로 「신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의 노래를 선사, 서울대인의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燮〉

미술작품

南 惠 淑 作

캔버스에 오일, 53.5×41㎝, 1996

66년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南惠淑동문은 오랫동안 즐겨 그리던 비구상에서 구상작업으로 변신을 하고 최근에는 수채화까지 장르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비구상 작업을 해와서인지 南동문의 작품에는 일반적인 구상작업에서 볼 수 없는 선과 면이 강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정성 짙은 화폭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고 은은한 화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南동문은 한일 작품 교류전, 정부 수립 30주년 기념 초대전, 한불 여류화가회전, 62회 프랑스-독일 순회전, 애틀란타올림픽 기념 한국작가 초대전 등에 초대 출품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여류화가 회원, 호울회 회원, 일원회 회원, 62회 회원, 국제화우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께서 丁丑年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南동문의 화려하고 대담한 작품을 표지에 선보인다. 〈편집자주〉

6개 부처 동문장관 교체

OECD대사 具本英동문 등

차관급 16명 인사

金泳三(51년 文理大卒)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농림부장관에 丁時采(국가정책과정 9期)前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통상산업부장관에 安光嵒(64년 法大卒), 환경부장관에 姜賢旭(61년 文理大卒), 총무처장관에 金漢圭(국가정책과정 20期), 과기처장관에 金容鎭(63년 文理大卒), 법제처장에 宋宗義(64년 法大卒)동문을 임명했다.

또한 具本英과기처장관을 OECD대사에 내정하고 안기부1차장에 朴一龍(63년 法大卒), 후임 경찰청장에 黃龍河(65년 法大卒)동문을 기용했다.

한편 지난 24일 총리행정조정실장에 李桓均(64년 法大卒)동문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재경원차관에 林昌烈(66년 商大卒), 문화체육부차관에 金鍾民(72년 法大卒), 통상산업부차관에 姜萬洙(69년 法大卒), 정보통신부차관에 朴成得(국가정책과정 20期), 노동부차관에 禹誠(국가정책과정 21期), 해양수산부차관에 張丞玗(70년 商大卒), 국가보훈처 차장에 金義在(62년 法大卒), 관세청장에 金永燮(70년 商大卒), 병무청장에 金吉夫(최고경영자과정 38期), 농진청장에 金東泰(66년 農大卒)동문을 기용했다.

중소기업청장에 鄭海洲(68년 法大卒), 특허청장에 韓憲洙(71년 商大卒), 안기부2차장에 李丙琪(71년 文理大卒)동문이 각각 발탁됐다.

張회장이 8회 동기회에게 「뭉치자賞」을 수여했다.

상대동창회

「뭉치자·돕자·빛내자賞」 시상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 23일 상의클럽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羅雄培 前부총리, 禹贊穆조흥은행장, 朴燦鍾 신한국당 고문, 李祥根신용관리기금이사장, 洪龍燦우성해운부사장, 司空壹교통개발연구원이사장, 金昇卿기업은행장, 金周南한국도로공사이사장을 비롯해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張禮準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를 살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상대인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기타 안건을 토의했다.

한편 「뭉치자賞」「돕자賞」은 8회 동기회와 조흥은행지부가 각각 수상했으며, 한해동안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빛내자賞」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鄭夢準동문에게 돌아갔다. 〈志〉

치대동창회

발전기금 11억원 모금 달성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讃淑)는 지난 12월 20일 모교 상아회관에서 50여명의 동문과 모교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金光男학장은 인사말에서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올해까지 발전기금 11억원이 모여 숙원사업인 병원건립이 가시화됐음은 물론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경쟁이 심한 시대인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역대 학장 및 병원장 소개가 있은 후,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예정

가정대동창회

2월18일 정총 열기로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仁子)는 지난 12월 7일 「서울탑」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18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모교 방문 행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同會는 오는 2월 18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월 1일 「서울탑」에서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약대동창회

1월14일 신년하례회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1월 14일 오후 12시30분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문의전화 701-3456)

AMP동창회

불우이웃 성금 1천만원 모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2월 26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孫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모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건배를 제의했다.

모교 鮮于仲皓총장의 축사와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은 후,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모금했다.

좌로부터 세번째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孫京植AMP동창회장.

謹 賀 新 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고문 金泳三
고문 金鍾泌
고문 閔復基
고문 金埈成
명예회장 崔主鎬
명예회장 鮮于仲皓
회장 金在淳
상임부회장 鄭宗澤
부회장 馬景錫
부회장 河永基
부회장 趙淳
부회장 金相廈
부회장 白樂晥
부회장 具平會
부회장 姜信浩
부회장 李聖秀
부회장 金許南

부회장 李達雨
부회장 裵載湜
부회장 鄭元植
부회장 朴晟容
부회장 宋斗灝
부회장 金善弘
부회장 徐廷和
부회장 鄭喜卿
부회장 申榮均
부회장 金貞植
부회장 閔丙晙
부회장 姜晋求
부회장 鄭仁奎
부회장 羅雄培
부회장 李宗勳
부회장 趙南煜
부회장 張翼龍
부회장 金柱津
부회장 李漢雄
부회장 李丙俊

부회장 李金器
부회장 李埈鎔
부회장 李相禹
부회장 尹世榮
부회장 玄昭煥
부회장 洪斗杓
부회장 許鎭奎
부회장 尹永錫
부회장 崔秉烈
부회장 卞柱仙
부회장 金鍾振
부회장 朴容晟
부회장 李祥義
부회장 鄭大哲
부회장 金基炳
부회장 金英大
부회장 玄在賢
부회장 洪錫炫
부회장 鄭夢準
부회장 崔元榮

감사 李基雄
감사 方孝宣
사무총장 李世震

재단법인 관악회

〈동창회 임원 겸임 동문은 중복을 피함〉

이사 金道昶
이사 白文基
이사 李乃均
이사 許浚
이사 孫京植
이사 洪性大
이사 尹美子
이사 姜昌淳
이사 李弘中
이사 朱鎭旴
감사 朴英俊
감사 朴柱鐸

사대동창회

자랑스런 서울사대인賞 수여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畯)는 지난 12월 21일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송년회를 겸한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2만5천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同會는 이날 金永敦(前 공주사대학장), 黃錫根(前서울 잠실고교장)동문에게 「자랑스런 서울사대인상」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黃載璣사대학장 등이 참석했으며 李壽成국무총리, 金鍾泌자민련총재, 鄭元植세종연구소이사장, 李榮德정신문화원장, 金宗西교육개혁위원장, 趙鏞樂 전임회장, 李應百명예교수, 朴冠鎬동국대 명예교수, 鄭範謨 前한림대총장, 卞柱仙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鄭喜卿·서한샘·裵鍾茂의원을 비롯해 연극인 金明坤, 방송인 金沇珠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대원동창회

宋榮大동문 초청강연회 열어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12월 17일 조선호텔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宋榮大 前통일원차관은 「최근 북한실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농대동창회

신임 학과동창회장 상견례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朴振煥)는 지난 12월 3일 송년회를 겸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의 高學均 학장, 李銓濟학생담당 부학장, 鄭夏禹교수, 同會의 李茂夏총무이사를 비롯해 각 학과동창회장과 총무 등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농대 개교 90주년 기념사업과 사업비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새로 선출된 산림자원학과동창회 金演表 회장, 농생물학과동창회 李正雨 회장, 농업교육과동창회 李鎬俊 회장, 농공학과동창회 柳根學회장의 상견례가 있었다.

의대동창회

「함춘 송년의 밤」 개최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96 함춘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韓格富 前의학협회장, 李文鎬한국의사국가시험원장, 盧寬澤한림대의료원장, 韓斗鎭대한병원협회장, 韓鏞徹삼성의료원장, 朴孃實 前보사부장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李吉女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 숙원사업인 함춘회관 건립을 위해 모든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ACAD동창회

조찬강연회 가져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朴寬用)는 지난 12월 11일 오전 7시30분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좌로부터 金炯英고문, 姜來烈 前회장, 權永煥고문, 申尙澈고문.

마산지부

신임회장에 宋國憲동문 선출

마산支部同窓會(회장 姜來烈)는 지난 12일 롯데크리스탈 호텔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申尙澈(경남대교수)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회무,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전형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신임회장에 宋國憲(62년 商大卒·경남리스 사장)동문, 부회장에 李景宰(63년 文理大卒·동진산업 대표), 李梓旭(65년 工大卒·TMC 대표), 趙星浩(68년 齒大卒·새한치과의원장)동문, 감사에 尹德重(68년 師大卒·경남대 중앙도서관장), 金永德(70년 醫大卒·서울산부인과의원장)동문을 선출했다.

영동지부

모교 지원 방안 협의

영동支部同窓會(회장 姜奎錫)는 지난 12월 20일 동해관광호텔에서 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동문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며 올 한해를 잘 보낸 것 같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좀 더 모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교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추후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모교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의대 인천지부

韓東洙회장 선임

의대 인천支部同窓會(회장 林南宰)는 최근 인천 소재 갤럭시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은 韓東洙(신경정신과의원장)동문을 신임회장에 선출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더많은 기여를 해나가기로 결의하고 특히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약대22회

宋羽永회장 선출

약대22동기회(회장 金閏鍾)는 지난 12월 7일 「비스토레스토랑」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신임회장에 宋羽永(사진)동문을 선출하고 내년에 졸업30주년을 맞아 하와이로 기념여행을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志〉

캐나다 온타리오지부에서 보내온 FAX

지난 12월 17일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金 孝(63년 美大卒) 회장이 본회에 보내온 소식을 소개한다.

안녕하신지요.

오늘 마침 카드와 함께 소식을 보내드리면서 우선 FAX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회보, 개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녹화테이프 그리고 수첩(DIARY) 10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곳은 그사이 예정했던 행사를 다 마치고 다가온 신년 잔치모임(1월 25일)관계로 운영위원 모임에서 티켓 배포를 끝냈습니다. 신년 모임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준비하여 모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레이프를 동문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린 카드속에 수표 5천달러를 동봉했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곳 동문들의 성의로 받아주시어 총동창회에서 계획하시는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처음엔 각 동문 개개인 상대로 모금을 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 기준으로 모금을 의뢰, 좀 늦었습니다만 모두 호응함으로써 결국은 각 개인이 참여한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간 뉴스 레터 3번, 운영위원 모임 2차례, 행사 3번을 치렀습니다. 차후 소식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급히 보내느라 난필입니다. 용서하시고 평안하신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회장 金 孝

모임예정

기계동문회
1월10일 신년회

기계동문회(회장 崔相弘)는 1월 10일 오후 6시30분 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정치학과
1월14일 신년모임

정치학과동창회(회장 金榮國)는 1월 14일 오후6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불어교육과
1월18일 정기총회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1월 18일 오후 6시30분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부페」에서 신년하례식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진주지부

새 회장에 權晳珍동문 선임

진주支部同窓會(회장 鄭敬泰)는 지난 11월 29일 남강뷔페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權晳珍(60년 法大卒·영진프라스틱 사장·진주상공회의소 회장)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는 金厚根(59년 農大卒·경상대교수), 崔文錫(67년 文理大卒·삼현여고교장), 申順澈(68년 醫大卒·진주제일병원장)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李炳漢(65년 齒大卒·복음병원 치과의원장), 朴忠生(66년 大學院卒·경상대교수)동문, 총무에 姜信雄(68년 文理大卒·경상대 인문대학장)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전임 鄭敬泰(59년 醫大卒)회장을 비롯해 鄭允壽(43년 京城高工卒), 尹泰圭(48년 農大卒), 權淳纘(49년 師大卒), 金一(55년 齒大卒)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수원지부

총회서 동창회보 3호 배포

수원支部同窓會(회장 邊尙鉉)는 지난 12월 9일 동수원관광호텔 대연회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高學均농생대학장, 崔熙仁수의대학장, 韓 愾경기도 교육감, 沈載德수원시장 등 1백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96년 결산보고, 97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여흥시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간한 동창회보 3호를 배포했다.

문리대 부산大지부

신임회장에 柳胎馨동문 추대

좌로부터 두번째 金漢都회장, 白樂晥인제대총장.

문리대 부산대학支部同窓會(회장 金漢都)는 지난 12월 3일 동래관광호텔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 신임회장에 柳胎馨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金章煥·李名宰동문, 감사에 文勝義·趙東元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白樂晥 부회장이 참석, 70년 인생경륜이 담긴 격려사와 원로 외과전문의로서 그동안 체험한 건강유지법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97년 1월부터 동창회비를 현재의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정기총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신입회원들을 위해 환영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날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교 마크가 새겨진 타이핀 85세트를 전달했다.

외교학과

정치학과동창회와 통합 의결

외교학과동창회(회장 姜賢旭)는 지난 12월 11일 「만강홍」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97년부터 외교학과동창회와 정치학과동창회가 통합됨에 따라 외교학과 동문들만의 전체모임으로는 마지막이 된 이번 모임에는 朴弘圭(외교안보연구원교수), 李東和(서울신문 주필), 金明炫(서울시의원), 申仲植(시사저널 발행인), 鄭鎭泰(한러친선협회장)동문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兪 煥강서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金 駒수석부회장의 동창회 통합관련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특별회원부터 84학번 후배까지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참석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며, 회장단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통합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志〉

신경외과

趙榮熙회장 재선임

의대 신경외과동창회(회장 趙榮熙)는 지난 12월 7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임회장에 趙榮熙(사진)동문을 재선임하고 창설40주년을 맞는 97년에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기로 했다.

의대11회

朴熙伯회장 연임키로

의대11동기회(회장 朴熙伯)는 최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임기만료된 朴熙伯(외과의원장)회장을 차기회장에 재추대하고 총무에 趙璋元(상록의원장)동문을 선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동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상대9회

회원명부 발간

상대9동기회(회장 姜永福)는 최근 96년도 동창회 명부를 발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KT관악회

통신망 이용 상설연락방 운영

한국통신(KT)관악회(회장 皇甫漢)는 지난 12월 20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97년 사업보고를 통해 3월경에 회원수첩을 발간하고 하이텔에 CUG개설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작성, 상설연락망을 운영해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KT관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李海旭(63년 商大卒·이사장), 李 俊(68년 文理大卒·前사장)동문 △회장: 皇甫漢(60년 工大卒·위성사업본부장)동문 △부회장: 金泰武(63년 法大卒·인력개발본부장), 金明錫(63년 工大卒·위성사업본부 연구실장), 李容璟(64년 工大卒·연구개발본부장), 李奎鍾(64년 工大卒·위성사업본부 조정실장), 姜玫鎬(69년 工大卒·해외사업본부장), 金正守(70년 農大卒·공정대책실장)동문 △감사: 柳重哲(63년 農大卒·강원본부 기획관리국장), 權行民(82년 經營大卒·통합시스템개발단 부장)동문 △간사장: 朴仁洙(85년 工大卒·통신경제연구소)동문

공대59회

부부동반 송년회 가져

공대59동기회(회장 金聖中)는 지난 12월 2일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부부동반으로 2백6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담소를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李春根동문 등 10여명의 스승을 초청, 사은잔치를 열었다.

치대30회

발전기금 1천만원 출연

치대30동기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12월 21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연회장에서 「송년 사은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졸업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1천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치대12회

신임회장에 柳署潤동문

치대12동기회(회장 洪性益)는 지난 12월 14일 「상제리제부페」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柳署潤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李炳五·金鍾達·趙誠稷동문, 감사에 尹溪燦동문, 총무에 洪性益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현재까지 모금한 발전기금은 빠른 시일안에 치대동창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치대29회

李玟求회장 선출

치대29동기회(회장 姜鳳岐)는 최근 「남강」에서 임원개선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28명의 회원들은 신임회장에 李玟求(사진)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朴鍾萬동문을 선임했다.

치대31회

졸업20주년행사 준비

치대31동기회(회장 朴仁出)는 오는 2월 28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로 졸업2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기념식은 동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소재 그린빌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골프, 바둑, 낚시대회 등 각종 친목행사와 「가족오락관」「주부가요열창」 등 다양한 여흥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한편 同會는 행사 기간중 기념선물 증정식과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6, 17일 양일간 同會는 8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로 기념행사를 다녀왔다. 이 행사에는 멀리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동기들도 다수 참석해 골프, 등산, 바다낚시 등을 함께 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법대24회

동기회 수첩 배포

법대24동기회(회장 朴敏煥)는 지난 12월 12일 무역회관 51층 「무역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입학30주년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과 동기회 수첩을 배포하고 내년도 동창회 사업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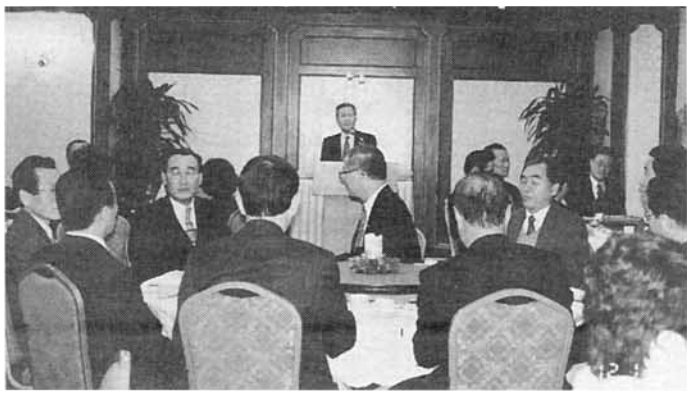
의대13회

송년회서 화합 다짐

의대13동기회(회장 姜熙崙)는 지난 12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으로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정담을 나누었다.

同會는 매달 13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다져왔다.



토목공학과 11회

졸업40주년 행사 진행 협의

佛巖11동기회(토목공학과 11회 회장 趙成錡)는 최근 자유로 근처 「피아노 레스토랑」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으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올해로 다가온 졸업4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20회

모교 발전기금 전달

의대20동기회(회장 李孝灼)는 최근 졸업30주년 기념행사 후, 남은 1천만원을 모교와 의대동창회에 각각 5백만원씩 출연했다.

물리학과

우수동문 공로패 수여

물리학과동창회(회장 朴東秀)는 지난 12월 7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창립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同會는 이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金裕錫동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생물교육과

창립50주년 홈커밍 행사

생물교육과동창회(회장 金在浩)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에서 창립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동문과 재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체육대회를 열고 각 실험실, 연구실 견학이 있었으며 동문들의 저서와 기념품 전시회가 함께 진행됐다.

오후2시부터는 창립5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가 열려 張楠基교수의 「생물교육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활발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리셉션에서는 사대 黃載璣학장의 축사와 金遵敏, 崔基哲교수를 비롯한 동문들의 정감어린 회고담 및 여흥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맞춰 편찬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50년사」에는 동문들의 재학시절 추억담은 물론 생물교육과의 발전과정과 나아갈 방향 등이 정리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志〉

느티나무광장

丘 月 煥
연합통신 출판국장

외화내빈의 허세 버리자

과연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에 관한 논의가 많다. 결국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이 환자가 중환자냐 아니냐는 논쟁보다는 환자의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여튼 우리 경제는 이제 외채 1천억불, 경상수지 적자 2백억불,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결함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고성장의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기분이고 소득 1만불,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당장 생산성을 높이고 코스트를 줄이고 수출을 대폭 늘려서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외채도 갚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무슨 수로 그렇게 한단 말인가. 해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 당장 경제부총리를 시켜도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큰 돈 안들이고도 경제회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쓰지 않아도 될 돈 너무 많이 써

흔히 고비용 문제를 논의할 때 고임금 현상을 꼽는데 주는 쪽에서는 고임금일지라도 받는 쪽에서는 결코 고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현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과외비를 보자. 요즘 고3학생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월 1백만원 내외의 과외비를 쓰는게 보통인데 서양 어느 나라에서 한달에 1천불이 넘는 과외비를 쓰는가. 대학의 문만 활짝 열어 놓으면 해결될 일이다. 또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경조사비를 빼놓을 수 없다. 이것 역시 선진국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음식의 낭비는 얼마나 심한가. 연간 10조원 가량을 음식쓰레기로 버리고 있다니 가공할 일이다.

이밖에도 허세를 중시하는 외화내빈의 생활철학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 갖고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보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고함

새로 시작되는 반세기의 패러다임

李承晥(62년 法大卒)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지난 12월 12일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21세기를 향하는 국가적인 장래를 포함한 大乘的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진하려고 하는 懸案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또다른 해법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선진한국의 구호 아래 세계화, 지방화 정책으로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고취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이기주의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세계경제의 거센 파고가 국민 앞에 밀려올 때 과연 이 격랑의 操舵를 누가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해방 이후 풍운의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 나라의 엘리트로서 오늘을 일궈온 「신중년세대」로 불리는 우리들의 위기감은 또다른 현명한 해법을 찾기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들은 우월적 경쟁대상으로 서울대 지상주의의 지적을 받아오면서도 기초적인 열린 사회에서 미래가 보이는 사회로의 숨가쁜 경쟁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 부연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잊혀진 혁명이라고 전해진 여성해방 운동이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인들에게 기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실존하면서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 전환의 주체로서 공동체 시장의 기본틀을 짜나가고 있는 「놀라움의 변화」로 그 사명감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균형」 중시

실제로 우리나라가 WTO, KEDO, OECD의 주역이 되면서 거시적인 경제구조의 틀을 확고히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특히 곳곳의 엘리트들이 관여해서 결정한 국책들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변화를 동반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패러다임」, 즉 「사고의 틀」을 21세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복지문제에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몸담고 경주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깊이를 일반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척도에서 논의하려는 전통적 사고를, 먼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삶의 질」과 「예방」 그리고 「자립의 넓이」로 바꾸려고 하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그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서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성과 지도력 유지에 있어서 끝끝내 변화되어서는 안되는 것, 즉 인간성(Personality)의 균형이 항상 소중하다는 것과, 모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미래의 한국 50년 새 역사의 패러다임을 새로 설정해서 어려운 시기의 國運쇄신에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정

수 상

▲**尹天柱**(47년 文理大卒·前모교총장)=최근 재경 동래중·고동창회 송년모임에서 「제1회 자랑스런 동고인상」을 받음.

▲**朴景華**(49년 醫大卒·일신기독병원장)=

최근 부산광역시가 뽑은 「제12회 자랑스런 시민상」 봉사본상을 받음.

▲**張相泰**(50년 農大卒·동국제강회장)=최근 재경 동래중·고동창회 송년모임에서 「제1회 자랑스런 동고인상」을 받음.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원장)=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로부터 유엔특별공로상을 받음.

▲**徐基源**(50년 商大入·문학의 해 조직위원장·前KBS사장)=

최근 「문학의 해」 폐막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孔錫鵬**(55년 工大卒·한국패션협회장)=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金敎滿**(56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

지난 12월 6일 열린 성남 중·고교 동창모임에서 「자랑스런 성남인」에 선정, 기념패를 받음.

▲**韓秉勳**(56년 藥大卒·모교교수)=

지난 12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제10회 춘강상」 학술부문상을 받음.

▲**李相旭**(56년 醫大卒·카톨릭대교수)=최근 호주에서 열린 제8차 국제 백내장인공수정체 굴절 수술학회에서 백내장 수술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유공메달을 받음.

▲**鄭昌柱**(57년 農大卒·모교교수)=

최근 「농어촌 진흥대상」 연구개발부문상을 받음.

▲**金聖佑**(57년 文理大卒·한국일보고문)=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관측으로부터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기사장」을 전달받음.

▲**崔益燦**(57년 師大卒·중앙대교수)=최근 대한사진문화상 학술부문상을 받음.

▲**尹承重**(60년 工大卒·원도시건축대표이사)=지난 12월 13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예총 예술문화상」 건축부문상을 받음.

▲**金榮喆**(60년 農大卒·건국대교수)=최근 금호문화재단으로부터 제13회 금호학술상을 받음.

▲**梁承圭**(60년 法大卒·모교교수)=지난 12월 10일 열린 「제48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인권 옹호 및 신장에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朴元勳**(6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지난 12월 3일 美 미네소타주립대학으로부터 우수졸업생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음.

▲**咸敏植**(64년 法大卒·한일은행 고객개발부장)=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하는 「금융인대상」을 받음.

▲**李承雄**(64년 商大卒·삼성정밀화학대표)=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음.

▲**李德林**(65년 工大卒·미원대표이사)=

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음.

▲**康炳浩**(66년 法大卒·대우사장)=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張虎男**(67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지난 12월 6일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한국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宋再復**(67년 商大卒·한화기계사장)=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許 雄**(68년 大學院卒·한글학회이사)=

최근 재경 동래중·고동창회 송년모임에서 「제1회 자랑스런 동고인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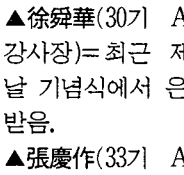
▲**金容植**(71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연구와 관련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얀센 정신분열병 연구 학술상」을 받음.

▲**柳佑益**(73년 大學院卒·모교교수)=최근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제4회 농어촌진흥대상 환경개선부문상을 받음.

▲**金光林**(75년 文理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최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96 최우수 예술인」 선정에서 연극·연출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宋在熹**(83년 醫大卒)=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제정한 보건부문 「제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받음.

▲**曺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



최근 KBS가 제정한 제5회 해외동포상 예술부문 상 수상자로 선정됨.

▲**李炳彦**(2기 AIP·중외제약사장)=최근 한국경영사학회가 제정한 「올해의 전문경영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崔在英**(11기 AIP·동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AIP同窓會長)=

최근 연세대 경영대학원이 주관하는 「고위경제인상」을 받음.

▲**李來炘**(25기 AMP·현대건설사장)=지난 12월 14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제1회 한국발레협회상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받음.

▲**李重孝**(27기 AMP·교보생명사장)=최근 한국경영사학회가 제정한 「올해의 전문경영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徐舜華**(30기 AMP·기아특수강사장)=최근 제3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음.

▲**張慶作**(33기 AMP·조선호텔사장)=최근 한국관광레저학회가 제정한 「제1회 관광기업대상」을 받음.

▲**高羲善**(41기 AMP·농우종묘사장)=최근 산학연협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산학연상」 최우수상을 받음.

▲**安福鉉**(41기 AMP·삼성항공산업부사장)=최근 산학연협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산학연상」 최우수상을 받음.

이동·선임

▲**權彝赫**(47년 醫大卒·前모교총장)=

지난 12월 12일자로 성균관대학교 제16대 이사장에 선임됨.

▲**張忠植**(52년 師大卒·前단국대총장)=지난 12월 13일자로 단국대학교 이사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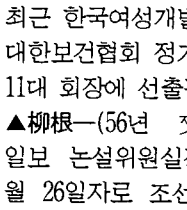
▲**李炳暉**(5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최근 일본 고베시에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란 주제의 제10차 환태평양원자력회의에서 태평양원자력협의회 회장에 추대됨.

▲**權奇泰**(56년 工大卒·한라건설고문)=최근 한라그룹 부회장겸 건설엔지니어링 소그룹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洪九**(53년 法大入·신한국당 대표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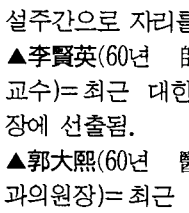
지난 12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평화원(IPA)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의 명예공동의장에 추대됨.

▲**金東集**(58년 醫大卒·카톨릭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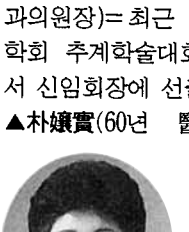
최근 국제골수이식학회 조직위원에 선임됨.

▲**金鎭福**(58년 醫大卒·모교교수)=



최근 말레이지아 페낭성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아태평양암학회에서 사무총장에 피선. 또한 일본외과학회 명예회장에 위촉됨.

▲**金讚煜**(59년 工大卒·이수화학 대표이사)=



최근 (주)이수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함.

▲**曺京植**(59년 商大卒·한국해양대총장)=

최근 한국해양연구소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됨.

▲**李晟雨**(59년 醫大卒·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장)=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대한보건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柳根一**(56년 文理大入·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지난 12월 26일자로 조선일보 이사논설주간으로 자리를 옮김.

▲**李賢英**(60년 師大卒·건국대교수)=최근 대한지리학회 회장에 선출됨.

▲**郭大熙**(60년 醫大卒·비뇨기과의원장)=최근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朴嬪實**(60년 醫大卒·前보사부장관)=

최근 서울시 대학동창여성대표협의회 회장에 피선됨.

▲**林炯斗**(61년 文理大卒·서울방송 편성제작본부장·本報論說委員)=지난 12월 3일자로 서울방송 상무이사겸 제작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尹世榮**(61년 法大卒·서울방송회장·本會副會長)=

지난 12월 11일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

▲**黃光秀**(61년 師大卒·서울교대총장)=최근 서울교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됨.

▲**曺基鳳**(62년 工大卒·석유개발공사 개발본부장)=최근 진로그룹 비서실 해외사업담당 사장에 취임함.

▲**張支煥**(62년 法大卒·쌍용건설사장)=

최근 남광토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源會**(62년 醫大卒·부산대교수)=최근 대한폐경학회 신임회장에 선출됨.

▲**高昌舜**(62년 大學院卒·모교교수)=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에 피선됨.

▲**金昌洙**(63년 工大卒·LG전자기술원부사장)=최근 LG전자 기술원 원장으로 승진함.

▲**羅正雄**(6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최근 대한전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朴贊敏**(63년 工大卒·LG엔지니어링부사장)=최근 LG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兪玄植**(63년 工大卒·제일모직 화성사업본부 대표이사 부사장)=

최근 삼성종합화학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玄明官**(63년 法大卒·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근 삼성물산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晩基**(63년 師大卒·한국외대교수)=최근 한국행정학회 신임회장에 선임됨.

▲**禹德昶**(63년 商大卒·쌍용양회 사장겸 그룹부회장)=

최근 쌍용그룹 총괄부회장으로 승진함.

▲崔然弘(63년 農大卒·대한잠사회 회장)=최근 대한잠사회 제21대 회장에 재선임됨.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보 편집국장·本報論說委員)=지난 12월 26일자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珍鏞(63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에 피선됨.

▲金鳳一(64년 工大卒·대림엔지니어링 부사장)=지난 12월 9일자로 대림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승진함.

▲金溢斗(64년 工大卒·코오롱그룹 기조실사장)=지난 12월 11일자로 코오롱전자(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治洙(64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최근 한국불어불문학회 신임회장에 선출됨.

▲鄭助英(6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지난 12월 9일부터 6일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등을 방문, 한·중간의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와 학술교류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컴퓨터를 비롯 장학증서를 전달함. 한편 국내인사로는 최초로 연변과학기술대학 명예교수로 추대됨.

▲安秉萬(64년 法大卒·한국외대총장)=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崔埈明(64년 師大卒·조선일보 사장실장)=지난 12월 26일자로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朴泰夏(64년 商大卒·숭실대교수)=최근 한국경제발전학회 신임회장에 선출됨.

▲閔信弘(64년 藥大卒·동아제약 부사장)=최근 명미화장품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崔國鎭(64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유방암연구회 초대회장에 선출됨.

▲金正國(65년 法大卒·현대중공업 대표이사)=최근 한국강구조협회 초대회장에 선임됨.

▲申勝敎(65년 工大卒·LG건설 부사장)=최근 LG건설(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李敏燮(65년 文理大卒·前문체부장관·춘천支部同窓會長)=최근 동아그룹 고문에 취임함.

▲李鍾鏞(65년 法大卒·한라해운 대표이사 사장)=최근 한라해운(주) 대표이사 부회장겸 유통서비스 소그룹장으로 승진함.

▲李千洙(65년 法大卒·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최근 순천향대학교 총장에 내정, 오는 3월에 취임할 예정임.

▲南相午(65년 商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회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에서 97년도 신임회장에 선임됨.

▲朴成錫(65년 商大卒·한라그룹 기조실 사장)=최근 한라그룹 기획실장(부회장)으로 승진함.

▲朴英一(65년 商大卒·쌍용제지부사장)=최근 쌍용제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李弼坤(65년 商大卒·삼성물산 대표이사 부회장)=최근 삼성그룹 중국본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

▲崔 彈(66년 工大卒·쌍용엔지니어링부사장)=최근 쌍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白榮哲(66년 文理大卒·건국대교수)=최근 한국정치학회 98년도 차기회장에 선출됨.

▲崔仁基(66년 法大卒·前농림수산부장관)=최근 한국지방행정발전과 농어촌발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공적을 인정받아 명지大로부터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음. 또한 지난 12월 3일 국립 여수수산대 총장에 취임함.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최근 교통개발연구원 원장에 재임명됨.

▲李忠九(67년 工大卒·현대자동차 부사장)=최근 한국자동차공학회 제10대 회장에 선임됨.

▲張五鉉(67년 農大卒·교육부 고등교육실장)=최근 한국공경제학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됨.

▲朴永培(67년 藥大卒·동아제약전무)=최근 동아유리(주)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張安秀(67년 藥大卒·동아제약상무)=최근 동아제약(주) 전무로 승진함.

▲徐正燉(67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초대학장에 내정됨.

▲崔龍默(67년 醫大卒·경희대교수)=최근 대한혈액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됨.

▲朴容昡(68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출됨.

▲朴秉宗(69년 工大卒·쌍용건설전무)=최근 쌍용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韓正男(69년 農大卒·호남샤니 대표이사 사장)=최근 비알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憲出(69년 文理大卒·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車同千(69년 法大卒·한솔판지 대표이사 상무)=최근 한솔판지(주) 대표이사 전무로 승진함.

▲李學甲(69년 商大卒·대림요업 부사장)=지난 12월 9일자로 대림흥산 사장으로 승진함.

▲趙明載(69년 商大卒·LG화학 부사장)=최근 LG화학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朴贊一(69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차기회장에 연임된데 이어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됨.

▲表鶴吉(70년 商大卒·모교교수)=최근 국제계량경제학부 신임회장에 선임됨.

▲李英善(70년 商大卒·연세대교수)=최근 한국국제통상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됨.

▲孫益壽(70년 行大院卒·데이콤사장·대한카누연맹회장)=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카누연맹(ICF) 총회에서 아시아지역이사로 선출됨.

▲羅鍾太(71년 工大卒·코오롱상무이사)=지난 12월 11일자로 코오롱호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丁世鉉(71년 文理大卒·대통령 통일비서관)=지난 12월 19일자로 민족통일연구원 원장에 취임함.

▲徐京錫(71년 法大卒·LG그룹 회장실 부사장)=최근 LG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閔陽基(71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에 피선됨.

▲朴誠淑(71년 醫大卒·신경정신과의원장)=최근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鄭明熙(71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에 피선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사장·本會副會長)=지난 12월 11일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

▲嚴基永(74년 文理大卒·문화방송 앵커)=지난 12월 12일자로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賢九(75년 商大卒·한일투자신탁 상무이사)=지난 12월 12일자로 신세기투자신탁(前한일투자신탁) 신임사장에 취임함.

▲張鉉明(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교수)=최근 세라믹 재료관련 기초과학연구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대표적인 과학자 33명과 함께 세계세라믹대표회의(WCC) 국제위원회 임원에 선임됨.

▲金文水(76년 經營大卒·진로그룹 기조실 전무)=최근 (주)진로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함.

▲金仙英(76년 醫大卒·충남대 보건진료소장)=최근 충남대학병원 교육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在昊(76년 醫大卒·충남대교수)=최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 취임함.

▲愼昌宰(78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교보생명 임시주총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金在哲(4기 AMP·동원그룹회장)=최근 한국해양연구소 부이사장에 유임됨.

▲金斗煥(17기 AMP·한국화장품공업전무)=최근 한국화장품공업(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金漢圭(20기 ACAD·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한·중 두 나라 사이의 학술교류와 수교 및 친선도모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국무원 사회과학원 명예연구원에 위촉됨.

▲李信行(25기 AMP·국회의원·기산 대표이사 사장)=지난 12월 5일자로 (주)기산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光熙(39기 AMP·前농촌진흥청장)=지난 12월 3일자로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에 임명됨.

▲吳尙洙(39기 AMP·만도기계 부사장)=최근 만도기계(주) 대표이사 사장겸 자동차부품 소그룹장으로 승진함.

▲李鍾溥(41기 ACAD·대전고검 사무국장)=지난 12월 1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승진함.

〈12면에 계속〉

社告

함께 근무할 동문을 찾습니다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22만 동문의 친목을 도모하는 서울대인의 대표 단체입니다.

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주도하는 회원부에 근무할 동문을 찾고 있으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회원부 부서장 1명
   △70학번 이후 동문으로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관리, 기획, 영업 경력자
2.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2차:면접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A4 2~4매:경력위주)
4. 서류접수
   △97년 1월 25일까지. 우편 및 직접 접수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총무부 (전화702-2233)

서 울 대 총 동 창 회 사 무 처

행사·출간

▲李潤子(46년 師大卒·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최근 교통회관 강당에서 「양곡낭비 줄이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金許男(52년 法大卒·국회의원·本會副會長) = 지난 12월 17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최장기 국회의장 직무대행 기록인정서」를 받음.

▲裵載湜(53년 法大卒·국제키비탄 한국본부총재·本會副會長)= 지난 12월 11일 롯데호텔에서 심신장애 아동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기금조성 자선의 밤」을 개최함.

▲金道浹(53년 醫大卒)=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7-12번지에서 개원함. (전화 0348-53-2508)

▲鄭秉錫(55년 看護大卒·보건사회국 보건과계장)= 지난 12월 26일 부산시청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

▲孫鵠奎(56년 文理大卒·동국대교수·한국사회정책학회장)= 지난 12월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대교수·한국헤겔학회장)= 지난 12월 21일 모교 문화관에서 논문발표회 및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함.

▲尹鐸求(57년 醫大卒·원자력병원 실험병리학연구실·대한암예방학회장)= 지난 12월 23일 중국 절강의과대학 학장겸 중국장암학회 주석인 Zheng Shu학장의 초청으로 「인삼의 암예방효과와 임상실험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을 함.

▲鄭世華(57년 文理大卒·前한국여성개발원장)= 지난 12월 10일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보센터 설립기념식에 참석함.

▲李吉女(57년 醫大卒·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이사장·醫大同窓會長)= 지난 12월 10일 인천 종합문예회관에서 「제5회 새 생명 만남의 밤」 행사를 개최함.

▲李漢雄(58년 商大卒·신협중앙회장·本會副會長)=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이사회에 참석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교수)= 최근 회갑을 기념하는 논문집 「한국현대비평가연구」를 출간함.

▲尹弘老(60년 文理大卒·단국대총장)= 최근 우리 고유의 한자와 한자어를 집대성한 「한국한자어사전」(전 4권)을 출간함.

▲金盛泰(60년 美大卒·군산대교수)=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KBS 군산방송국 전시실에서 정년퇴임기념 도예전을 개최함.

▲陳 剛(60년 藥大卒·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2월 24일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전국시·도지부장, 본부 각 부서장을 비롯한 대리급 이상 간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회의를 개최함.

▲金貞順(60년 醫大卒·모교교수) = 지난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한국에이즈예방연맹 활동을 강화해 캠페인,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국가정관리학회장·한양대교수)= 최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同會 제20차 학술대회를 개최함.

▲申永澈(61년 文理大卒·한국능률협회컨설팅사장)= 지난 12월 18일 한국능률협회그룹 근속 30년 기념문집 「신사장의 편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柳敏榮(61년 師大卒·단국대교수·예술의 전당 이사장)= 최근 저서 「한국근대연극사」를 출간함.

▲金光宇(61년 醫大卒·모교교수)= 지난 12월 12일 모교병원 교수회관에서 「중환자진료학」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中姬(62년 家政大卒·카톨릭대 생활과학연구소장) = 최근 카톨릭대학교 성심관 소강당에서 「한국 노인주택개발의 방향모색」을 주제로 덴마크,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李楨均(62년 醫大卒·한양대병원장)= 최근 수상록 「바쁘게 뛰어온 세월」을 출간함.

▲林松子(63년 美大卒·중앙대교수)=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관훈동 소재 가람화랑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金安濟(65년 行大院卒·모교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근 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

▲申明浩(66년 法大卒·주택은행장)= 지난 12월 5일 소년소녀가장 및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공익성 금융상품인 「차세대 사랑신탁」으로 조성한 기부금 2억7천8백만원을 한국복지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함.

▲金貴坤(67년 農大卒·한국환경교육학회장·모교교수)= 지난 12월 2일 모교 사대 교수회의실에서 美 미시간大 윌리엄 스탭 교수를 초청, 「세계 환경교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尹在根(68년 文理大卒·한양대교수)= 최근 저서 「봄기운은 어찌 이리 더딘가」를 출간함.

▲白南治(68년 法大卒·국회건설교통위원장)= 최근 국제질서를 새롭게 분석한 「21세기와 서브크라시」를 출간함.

▲李奎億(68년 商大卒·산업연구원장)= 최근 롯데호텔에서 기업이론의 석학인 이스라엘 커즈너교수 등을 초청,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을 주제로 개원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치과의사가 만든 경제주간지 인기
「ROI」 발행인 閔丙眞동문

치과의사로 성공한 閔丙眞(77년 齒大卒·서울치과병원장)동문(사진)이 최근 財테크 전문지를 창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창간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ROI」는 Return on Investment(투자수익률)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경제원리를 쉽게 설명하여 일반인, 특히 중산층의 정당한 재산증식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없어서는 안될 것중의 하나가 돈입니다. 건강한 돈, 나눔의 富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때문에 책 속에도 돈의 철학을 불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보지의 특성을 살려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읽을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閔동문은 최근 자전적 에세이 「음악이 흐르는 병원」과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지 「미국 사립고등학교 소개서」도 출간했다.

▲河英明(68년 商大卒·한국외대교수·한국국제경영학회장)= 지난 12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지역의 수출실태와 해외직접투자」라는 주제로 산학협동 심포지엄을 개최함.

▲朴惠蘭(69년 文理大卒·여성학 학자)= 최근 「믿는만큼 자라는 아이들」(웅진출판刊)을 출간함.

▲朱惠璟(72년 文理大卒·삼성데이터시스템이사)= 최근 「프로를 꿈꾸는 그대에게」(석필刊)를 펴냄.

▲裵圭漢(74년 文理大卒·국민대교수·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장) =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백63개 대학 학생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대학문화의 모색」이란 주제로 동계 세미나를 개최함.

▲朴在東(76년 美大卒·前한겨레신문 시사만평가)= 최근 갤러리 아트빔에서 「박재동 장편만화영화 오돌또기 특별전」을 개최함.

▲安奎哲(77년 美大卒·조각가) =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학고재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함.

▲朴仁出(77년 齒大卒·예치과의원장)= 최근 에세이집 「환자도 고객이다」(창현출판사刊)를 펴냄.

▲金成準(79년 法大卒·광주지검특수부장)= 최근 저서 「WTO법의 형성과 전망」을 출간함.

▲林聖日(80년 環大院卒·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저서 「영국의 지방자치제연구」를 출간함.

▲諸成鎬(81년 法大卒·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구랍 10일부터 16일까지 하노이국립대학과 호치민 경제대학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 현지 학자들과 도이모이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간담회를 가짐.

▲閔喜卿(82년 音大卒·前런던포커스정보 서비스 재정담당이사)= 최근 산문집 「남자들 별거 아니더라」(여백刊)를 출간함.

▲劉殷實(82년 醫大卒·서울중앙병원)= 최근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네빌 보너가 지은 「여의사의 역사」를 번역해 출간함.

▲全殷奭(83년 醫大卒)= 최근 2년간의 美 샌디에고 주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함.

▲趙文畯(83년 醫大卒)= 최근 1년6개월간의 휴스톤 MD앤드슨 암센터 장기연수를 마치고 귀국함.

▲李京宣(88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 지난 12월 1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독주회를 가짐.

▲林炳逸(94년 社會大卒·모교 행정대학원 재학중)= 제40회 행정고시에서 수석 합격함. 林동문은 林東昇(62년 商大卒·삼성증권사장)동문의 1남2녀중 막내.

▲黃勝華(94년 法大卒)= 최근 제38회 사법시험에서 최고득점자로 합격함.

▲金英一(33기 AMP·금강개발산업사장)= 최근 경기도 광주군 소재 자매결연부대인 특전사 교육단과 내곡동 소재 211연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로하고 8백4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함.

〈정리= 金志妍기자〉

동문을 찾아서

신임 단과대학 및 지부동창회장

수의대동창회
尹志炳회장

『졸업한지 40여년만에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책무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尹志炳(58년 獸醫大卒·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사장)동문은 졸업 후 연구공무원을 거쳐 30여년간 가축질병예방약 생산을 통해 축산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진력해왔다.

尹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 생산업체로 68년 설립한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1백20여종의 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92년에 동물약품업계 최초로 생물학적 제제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았다.

93년 4월에 대덕연구단지에 부설파천연구소를 설립,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연구, 질병진단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의 결실로 생산된 백신을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오랜 숙원이었던 6년제 학제 개편이 98년부터 실시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어 수의학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尹동문은 이제 이러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그 위상에 상응하는 노력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며 『후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창회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모교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 동창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봉사 기회로 삼아"

진주지부동창회
權晳珍회장

『진주지부 동문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져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남강 뷔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權晳珍(60년 法大卒·영진프라스틱 사장·진주상공회의소 회장)동문은 그동안 부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權동문은 『진주지부는 전임 鄭敬泰회장이 동창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원간의 결속력이 높은 곳』이라고 자랑하고 『94년부터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경제의 낙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방안에 대해 權동문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지역의 사정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로 틀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지역적 갈망을 서울대인이 앞장서서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현재 진주 남중학교 총동창회장,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년선도연합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진주지회장, 경상대 공대발전후원회장 등을 겸하고 있는 權동문은 『지역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을 바란다』고 말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서 생각과 행동에 모범이 되어 항상 존경받고 칭송받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마산지부동창회
宋國憲회장

『그동안 많은 역대 회장, 고문들께서 지부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동창회장직을 맡아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12월 12일 롯데 크리스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宋國憲(62년 商大卒·경남리스 사장)동문은 81년 경남은행 지부장, 84년 상무이사 서울지점장, 85년 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마산지부는 각 단과대학 출신별로 2~3명의 이사, 고문, 회장단으로 구성된 32명의 임원을 중심으로 매월 1일 저녁에 간담회 형식의 이사회를 개최, 매우 활기있고 알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약 2백여명으로 추산되는 동문의 길흉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연말 정기총회를 개최해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宋동문은 동창회 재원충당에 있어서 『이사 중심으로 회비를 갹출, 이사회 운영 및 행사 개최와 동문들의 경조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를 결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이사를 증원하여 보다 많은 동문이 이사회 운영에 참여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宋동문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면서도 동문 상호간의 유대와 연대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주 모이고 접촉해서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켜나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燮〉

"단대별 동창회 결성할 터"

이런일 합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自給으로 연 8억불 절약 가능"

공동대표 曺章煥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먹거리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입밀에 밀려 사라져 가는 우리 밀을 이 땅에 다시 자리잡겠다는 모임, 바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흐뭇하다는 曺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부총장)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설립취지는?

『첫째, 농약투성이인 수입밀을 먹거리로 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둘째, 대기정화 기능이 뛰어난 밀을 키움으로써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며 셋째, 농촌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 규모의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을 자급한다면 단순계산만으로 연평균 6~8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동문 구성은?

『임원은 공동대표 5명, 이사 11명, 감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문으로는 朴才一, 李大鏞, 南重鉉동문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으로 참여한 金德龍, 諸廷垠, 金仁泳, 金民錫, 李富榮, 李壽仁의원을 비롯해 李弘稙 모교교수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91년 출범한 이후 3년만에 회원은 15만8천여명, 출자금은 3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재배면적은 96년 기준으로 3천5백79*ha*까지 늘어 1만5백46톤을 생산, 매출액이 1백22억원으로 늘었지요. 구례, 무안, 아산, 합천에 제분공장이 완공됐고 정읍에도 제분공장이 건설중입니다. 현재 우리밀을 이용한 국수, 라면, 고추장, 과자, 소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 무공해 우리 밀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밀 생산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과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생산, 수매, 저장, 가동, 유통의 종합 일원화를 통해 21세기형 운동을 개척했다는 점, 우리 잡곡 살리기 운동이 뒤따라 활성화된 점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가입 방법은?

『운동본부의 가입신청서나 전화(02-322-5551)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금은 4구좌(4만원) 이상이며 시중은행에서 지로로(지로번호 7600636) 납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체국이나 농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국민생활 대안운동, 사업형 운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5년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살펴 2년간 전면적인 조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훌륭한 생산자들이 의욕적으로 뛸 수 있도록 종자,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2년간의 조정작업을 거치면 좀더 강한 체질로 변화하고 강력한 시장진출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志〉

추억의 窓

벚꽃터널 거닐며 키우던 靑雲의 꿈

學術院 會員 文國鎭(55년 醫大卒)

벚꽃터널이 시작되는 대학쪽에 있던 나무 아래서 동기들과 함께.(좌로부터 金昇元모교 명예교수, 필자, 崔東燁박사, 元公勳박사)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모교의 추억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은 벚꽃 터널 길이다.

대학에서 병원쪽으로 걷노라면 경사가 서서히 높아지는 약 1백미터의 길이 있는데 그 양쪽에는 커다란 벚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위의 가지들은 서로 엉켜 하늘을 가리워 마치 나무 터널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학부 2학년때까지는 대학 건물에서 강의를 받지만 3학년부터는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강의를 받게 된다. 때문에 의대생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이 길을 오르내리게 되는데 계절과 하루의 생활에 따라 나무 터널이 주는 감상은 매번 다르게 느껴짐을 경험하게 된다.

꽃피는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터져 나무 터널은 꽃 터널이 된다. 하루에 8시간이라는 강행군 강의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이 길에 들어서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같은 느낌을 받고 스치는 바람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같아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곤 했고, 봄비 내리는 날에는 꽃잎과 빗방울이 함께 떨어져 메말랐던 의학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곤 했다.

겨울에 이 길을 걷노라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시돋친 그림자가 움추렸던 몸과 마음에 침을 놓는 것 같았고, 가을날 지는 해에 떨어지는 낙엽은 쓸쓸한 황홀감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곤 했다. 여름의 무성한 잎과 가지가 만드는 그늘은 시원한 장래를 약속하는 것같아 우리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졸업 후, 모교에 들를 때면 필자는 이 길을 천천히 걷곤 했다. 그것은 마치 수만리 떨어진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해마다 날아드는 철새가 자신의 옛 둥지로 찾아드는 것과 같이 歸巢本能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길가에 있던 벚나무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소아과 병원이 들어섰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청운의 꿈을 안고 도도하고 신명났던 옵챙이 시절의 꿈과 낭만의 추억이 송두리째 없어져 허전하다 못해 안타깝기까지 하다.

여기의 사진은 벚꽃 터널이 시작되는 대학쪽에 있던 나무 아래서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다. 이제는 빛바랜 것이지만 좋은 추억이 담겨 있다.

⑧ 광주시청 지방자치단체 ⑨ 강원도청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양 최초로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宋시장이 지난 96년 6월 5일 개막된 「광주첨단전자전」을 관람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는 문화전통과 애국충절의 향이 진하게 배인 곳이다. 지난 95년 문화예술부가 주관한 「올해의 문화자치단체」에 광주시가 선정된 것은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기질과 오랜 문화적 토양이 바탕이 되어 얻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宋彦鍾(60년 法大卒)시장은 이러한 예향의 특성을 살려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宋彦鍾 광주시장

문화자치단체상 받아

광주는 동양 최초로 국제적인 종합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오는 97년 9월경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자리잡고자 기금조성, 프레스센터 및 전시관 건립, 비엔날레 지원근거법 제정 추진 등을 서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국악대전」 「한국화 전국특장 공모전」 등을 권위있는 행사로 육성하고 「광주 김치대축제」를 연례적인 관광 이벤트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宋시장은 시정의 목표를 민주 성지답게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진 민주시정 구현에 두고 공업단지 조성 확대, 유망기업 유치, 중소기업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며, 대도시의 고질병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시민고발창구」 등을 이용, 시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도시에서 2차산업중심의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업종을 위주로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백18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2001년까지 5백만평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동 2차단지와 첨단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공장용지 분양촉진 및 대기업 유치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시민고발창구」 운영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1백8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지난 96년 7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 및 「자동차연구소」를 육성 지원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죽음과 희생을 마다 않던 사람들의 영원한 고향, 광주. 이제 광주는 암울한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5·18묘역 성역화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빛고을」이라는 이름만큼 희망을 좇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 동문현황〉

安在粘	61년 文理大卒	정무부시장
鄭斗采	62년 商大卒	남구청장
金泰弘	66년 文理大卒	북구청장
金宗植	74년 文理大卒	경제통상국장

천혜의 환경 이용, 세계적 관광지 꿈꿔

강원도는 지난 한해동안 고성지역의 산불, 철원·화천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것을 잃었다. 최근 터졌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은 물론 강원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96년은 도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준 한해였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는 청정환경지역으로서 21세기 미래산업인 관광, 첨단, 환경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동해안시대, 통일의 시대에는 국토의 중심지이자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중시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경륜과 정치적 감각을 쌓아온 崔珏圭(57년 文理大卒)지사는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고, 키우고, 가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초로 「노인의 날」 제정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과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정 신문고」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한 바 있는 강원도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장기발전 전략의 하나로 「강원 비전21」을 마련, 벌써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천혜의 환경자원을 이용해 「개성있는 지역 가꾸기」에 힘쓰는 한편 「강원도형 農政 프로젝트 21」을 마련해 유기농쌀, 토종 찰옥수수 등 경쟁력 우위 작목을 선정, 이를 브랜드화하고 품질인증제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오는 2천년까지 6백억원 규모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 중이다.

또한 道면적의 82%나 되는 산지를 미래자원으로 소득화하기 위해 「21세기형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2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각종 자금의 확대지원, 안정적 판로개설, 해외시장개척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체제를 갖추면서 멀티미디어밸리 조성 등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미래형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강원도는 무한한 관광자원 등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물류기반이 근본

崔珏圭 강원도지사

적으로 미약해 개발기대 욕구는 강한 반면, 도내투자 여건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지난 95년 12월 제정했으며, 현재 휴전선 1백45㎞와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망을 조기에 고속·광역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에 진력

한편 세계에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국제대회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는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와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98년 월드컵스키대회, 99년 제4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가 연이어 열리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도 전 도민이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강원 발전대책을 수립, 일정별·목적별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민·관·학 관광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관광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광친화형 복합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98년에는 속초에서 국제관광 EXPO를 개최해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志〉

〈강원도 동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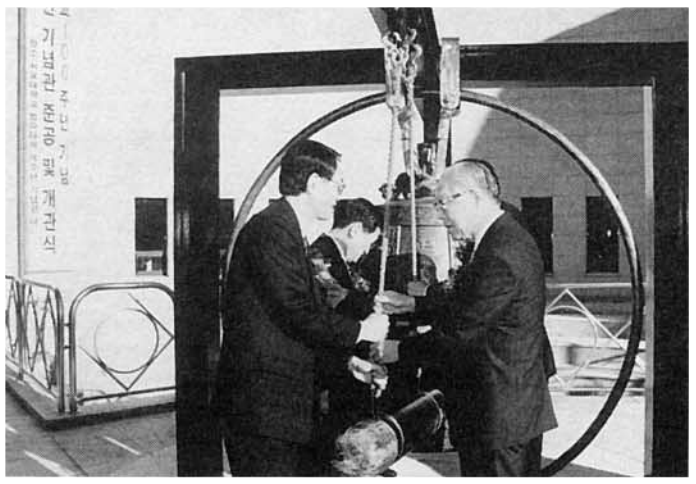
張錫喜	53년 農大卒	강원도 교육위원
林茂龍	64년 法大卒	내무국장
南東佑	72년 文理大卒	정무부지사

崔도지사가 강원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청정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모교소식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개관



鮮于총장, 宋학장 등이 「정의의 종」을 타종했다.

법과대학(학장 宋相現)은 지난 18일 관악캠퍼스에서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준공 및 개관식을 가졌다.

지상 3층, 연건평 6백50평에 공사비 31억원을 들인 이 기념관은 근대 법학 교육의 효시로 1895년 설립된 법대 전신 「법관양성소」 개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대동창회(회장 李奭熙)가 건립, 이날 모교에 기증한 것이다.

기념관 내에는 대강당, 소강당, 전자도서관, 열람실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대강당과 소강당은 주로 국제회의에, 동창기념홀은 법대동창회와 법학 교육역사 관련자료의 전시에 쓰이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백주년 기념관 현판식과 함께 「정의의 종」 타종, 대우그룹 金宇中회장 아호를 딴 「宙山기념홀」, 「동창기념홀」 현판식이 거행됐다.

한편 기념관 건립에 출연한 대우그룹 金宇中회장, 동아그룹 崔元碩회장, 서울방송 尹世榮회장, 삼성생명 金憲出사장을 비롯해 기념관 설계, 정의의 종 제작, 정보통신시스템 시설 설치 등에 참여한 관계자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과대학

「올해의 인물」에 金柱瑢동문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지난 27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미국 패라매트릭 테크놀로지社(PTC)의 스티븐 윌크스회장과 고려산업개발 金柱瑢(63년 工大卒)사장에게 「올해의 인물」상을 수여했다.

올해의 인물상은 공과대학이 매년 공대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윌크스회장은 지난 10월 7백80억원 상당의 기계설계용 소프트웨어인 「프로엔지니어」를, 金사장은 현대전자산업사장으로 재직시 20억원 규모의 펜티엄 PC 50대와 액실워크스테이션 1백대를 각각 공대에 기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鮮于총장이 동원그룹 金在哲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영대학

「동원생활관」 기증 받아

경영대학(학장 崔鍾泰)은 지난 12월 16일 관악캠퍼스에서 鮮于仲皓총장,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원생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동원생활관은 동원그룹(회장 金在哲)이 총공사비 35억원을 들여 연건평 750평에 4층 규모로 지어 모교에 기증한 복지시설로 대형학생회관, 교수 식당 및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미술대학

雨石 張 勃선생 흉상 제막

미술대학(학장 尹明老)은 개교 5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張 勃초대미대학장의 흉상제막식을 李信子 미대동창회장, 역대 미대학장,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미대 구내에서 개최했다.

張선생은 25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을 졸업, 46년 모교 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설립하고 49년 초대 미술학부장 및 미술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끼친 바 있다.

張선생의 흉상은 너비 53X 52㎝, 높이 70㎝의 브론즈로 朴世元명예교수가 제자를 하고 조소과 崔義淳교수가 제작했다.

행정대학원

盧化俊원장 취임

지난 12월 6일자로 제14대 행정대학원장에 盧化俊교수(사진)가 취임했다.

盧교수는 65년 공대를 졸업하고 69년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모교에 부임한 후 총무처 행정관리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교수, 경제기획원 평가교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범대학

인터넷 과외 실시

사범대학(학장 黃載璣)은 내년 3월부터 인터넷 스쿨 운영본부를 설치,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 학습자료를 인터넷 웹 DB로 개발해 유니텔을 통해 고교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PC를 통해 교수들이 제시한 학습자료와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 등 개인지도도 가능하다.

〈燮〉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12월호를 읽고

전문적인 내용의 읽을 거리 실었으면…

갖가지 홍보물들이 범람하고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세태지만 잊고 있을만 하면 한번씩 전달되는 동창회보를 받아 보는 기쁨은 여가 선용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듯 싶다.

편집면과 관련해 각 전문분야에서 제대로 읽을거리가 될만한 좀 묵직한 글을 한 두편씩 꼭 실었으면 한다.

그밖에 자질구레한 단편적인 기사들은 그것대로 독립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의 편집체제가 어딘지 혼란스럽고 잡다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대교수**

동문 상호간의 대화의 그릇 되어주길

졸업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모교의 자랑과 긍지를 갖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숨겨져 있던 동문인 나에게 50주년을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동창회보의 우정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따뜻한 대화의 그릇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더 많고 더 높은 동문들의 소리가 동창회의 문을 두드린다면 회보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건강함, 분주함이 더해지리라 믿으며 보다 크고 찬란한 회보의 발전을 기원한다.

金和子(63년 看護大卒)여의도고교 교사

뜨락

찰스 왕세자의 선택

李正子(63년 文理大卒)우리민족하나운동본부 회장

정무1장관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9월말 시민단체 대표 13명의 유럽 시민단체 시찰일정이 있어 일원으로 참가했다.

영국의 Amnesty International, Oxfam,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The Prince of Wales Business Leader Forum(PWBLF), 네덜란드의 Greenpeace International, ConsummentenBond, Dutch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Novib), 암스텔담 시청, 스위스의 UN Non-Governmental Liason Service, World Council of Church, World Trade Organization을 방문했고 모든 방문단체가 시민권 제고와 국내외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영국은 인구 3분의 1이 시민단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고 시민단체 종사자가 43만명이며 네덜란드는 GDP의 0.8%를 해외개발기금으로 지출하는 등 선진국가의 수준이 크게 다름을 느꼈다.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찰스왕세자이다. 찰스는 세계의 번영과 환경을 위협하는 아주 절박한 문제의 대부분은 기업가들과 지역사회지도자들간의 상호협력하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실험적으로 1990년 2월 우수한 국제적인 경영인 수백명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찰스턴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 기업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에 관해 상호 의견을 나누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모임이 계기가 되어 「웨일즈궁 왕세자가 이끄는 기업지도자 포럼(PWBLF)」이 설립되었다.

복지·환경사업에 눈돌려

어떤 기업도 「카난과 소외의 바닷속에 혹은 황폐한 환경 가운데 홀로 번영의 섬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테마이다. 시민사회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지난 5년간 세계 26개국에서 많은 창립 모임과 일련의 회의(서울에서는 1992년), 후속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벌였고 5천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은 주식회사 코오롱 1개사가 회원이며 지원사업에는 대한항공이 참여했다.

자기 지위 사회위해 활용

찰스는 경제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포럼으로 모아서 세력화하고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교육하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며 변화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잘 엮어내는 역할로서 자기의 역량-영국의 왕세자라는 고상한 지위와 권위를 가장 보람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이 찰스의 시각으로 시민운동을 들여다본다면 사회가 훨씬 빨리 개선될 것이다. 올해는 온가족이 적어도 1개 사회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이슈를 「follow up」해줄 것을 권하고 싶다.

「욕심 예찬론」

兪靜雅(89년 社會大卒)KBS 아나운서

첫아이를 낳고 나니 나 아닌 타인을 나보다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둘째를 낳고 나니 그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 둘이 되어 나의 사랑을 현명하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딱 얼마」로 제한되어 있는 줄 알았었다. 그래서 반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俗人의 영원한 話頭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물론 내 몸은 하나요, 시간은 그대로인지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처럼 반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큰 아이에게 온전한 하나, 작은 아이에게도 온전한 하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부터 퍼내어졌다.

이러한 자연스런 「사랑의 꺼내어짐」을 보면서 나는 자식을 낳고서야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나 자신의 옹졸함이 부끄러워졌다. 그러면서도 워낙 욕심이 많은 나는 나의 욕심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했다.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넓게 사랑하겠다는 조금 거창한 욕심을…

희망 부르는 삶의 활력소

俗人의 영원한 話頭는 욕심이 아닐까 한다. 뭔가 하고자,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 어렸을 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하는 다짐이나, 좋은 엄마,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 늦기 전에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바람, 또 새 옷을 사고 싶다거나 집안에 아름다운 가구를 들여놓고 싶은 물질적인 욕심, 깨끗한 선·후배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 또한 크게 보면 모두 욕심이다.

흔히 욕심이란 지나치기 쉽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중한 활력이다.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욕심이 없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자식들과 나의 知人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듯 나의 욕심을 적당한 곳에 적당히 배분하는 것은 올 한해에도 지혜롭게 생각해볼 나의 話頭이다.

동문의 소리에 답한다.

"다양한 기사발굴에 주력할 터"

편집주간 李世震

동문 여러분, 지면을 통해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동문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크게 편집 방향, 기사 안배, 기사 발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의견에 답하는 것으로 회보제작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동창회보는 매월 모교와 각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18분의 논설위원을 모시고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편집방향과 계획안을 확정한 후,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령 203호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하고 紙質을 높이고 지면을 확대하는 등 일대혁신을 거친 동창회보는 「항상 같게」「항상 새롭게」 동문 여러분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며, 노력하는 만큼 동문 여러분들로부터 기다려지는 회보, 읽혀지는 회보, 철하는 회보로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사 안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 기과별, 단기과정 동창회의 소식은 물론 해외, 지방, 직장 지부의 소식도 다양하게 게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 소개와 기사 발굴에 있어서 男女·老壯靑의 동문을 고루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보에는 성공한 사람만 나온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그늘진 곳에서 헌신, 봉사하고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문들을 보다 많이 소개하여 따뜻하고 감동적인 회보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일 합니다」「화제의 동문」 등 일부 지면은 이러한 의도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명예기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 폭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중질지와 신문용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紙質을 일원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변신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광고수익이 회보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발송비만도 연간 8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紙質을 중질지로 일원화하게 되면 중량초과로 발송비용이 2배로 늘어나는 형편이라 부득이 현재의 모습으로 제작, 발송되고 있음을 해량해주십시오. 기사의 비중이 낮아서 별지에 게재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쌓이는 연륜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모교와 동창회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소중히 새겨 회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본회 사무총장〉

모임探訪

仁旺會

앞줄 좌로부터 李成龍, 吳培根, 金洛升, 李廷冕, 姜永鎭동문. 뒷줄 좌로부터 金燦三, 朴智洙, 沈春燮, 李元淳동문.

사범대 출신 동문들 중에는 仁旺會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仁旺會는 46년 모교 창립과 더불어 당시 사범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사회, 지리, 역사분야를 전공하던 9명의 재학생이 함께 모여 만든 「공부하는 모임」이다.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신입회원을 더 받지 않고 50년을 한결같이 학문적 고견을 나누며 맥을 이어온 同會는 그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사범대 내에서는 전설적인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 선구자 역할

"학문적 동지이자 경쟁자로 우정 다져"

6·25전쟁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중단없이 모임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지만 회원들은 학문적 동지로서 또한 선의의 경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특히 金聲近 前사대학장은 회원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다.

회원들은 대부분 교육일선에서 정년을 맞았다. 문교부 장학관을 지내고 창덕여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李成龍동문은 최근 서울시 교육상을 받았고, 吳培根동문은 서울시 장학사를 거쳐 잠실고 교장으로, 姜永鎭동문은 서울시 중등과장을 거쳐 성동고 교장으로 정년을 맞았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金洛升동문은 문교부 행정연수책임자로 재직하다 서운중학교 교장으로 최근 정년퇴임했다.

李廷冕동문은 미국 유타주립대에서 정교수로 활동중인데 정년을 이미 넘긴 나이지만 학문적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계속 교수로 봉직하게 되었다면서 회원들은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李元淳동문도 모교 사대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同會의 홍일점인 沈春燮동문은 문교부 장학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약하다 무학여고 교장으로 정년을 맞았고 朴智洙동문은 서울시 중등과장을 거쳐 영등포여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경희대 교수이자 수필가로도 유명한 金燦三동문은 세계무전여행 일주를 강행, 각 일간지를 통해 여행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정해진 나이 때문에 정년퇴임을 하긴 했지만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후배들도 분명한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志〉

문화단신

新刊

■慧樑의 붓자취
－李應百 編

최근 국어학자인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이 故人이 된 부인 閔瑛媛여사 3주기를 맞아 세번째 문집을 펴냈다.

94년 「永遠한 꽃의 香氣」, 95년 「續 永遠한 꽃의 香氣」에 이어 이번에는 아내의 호(慧樑: 지혜로운 무궁화)를 따서 문집을 출간, 부부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문양사刊·비매품〉

■운명
－鄭昭盛 著

동인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박영준문학상, 월탄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鄭昭盛(69년 文理大卒·단국대교수)동문이 최근 열한번째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 작품은 한 여대생이 신이 내려 병을 앓다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다는 내용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 〈벽서정刊·값6,500원〉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니 행복도 있으리라
－韓性殷 著

현재 강원도 동해에서 한성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韓性殷(59년 藥大卒)동문이 그동안 틈틈이 집필해온 80여편의 시를 한 권에 담았다.

이 시집은 식물 정서가 주조를 이루어 정적이고 평온한 韓동문의 시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천우刊·값3,500원〉

■뜨거운 헛소리
－曺祥鉉 著

현재 서울 뮤직클럽 회장으로 재직중인 曺祥鉉(51년 音大卒)동문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교육 및 문화계의 "흔미스러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맞는 국민정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암출판사刊·값7,000원〉

■이 사람아!
－文國鎭 著

학술원 회원,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법의학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文國鎭(55년 醫大卒)동문이 최근 시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文동문은 80여편의 시를 통해 평상시에 겪는 주변의 喜怒哀樂을 색깔있는 언어로 배열해놓았다. 〈청림출판刊·값4,000원〉 〈정리=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태일정밀 사장 鄭康煥

"세계적 종합정보통신기기 메이커로 성장할 터"

지난 83년 10월 창업, 매출액이 86년 22억원, 88년 2백억원, 94년 1천9백77억원, 95년 2천6백4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세계 수준의 컴퓨터 핵심부품 및 주변기기 전문업체로 급부상한 「太一精密」 대표이사 鄭康煥(68년 工大卒)동문을 만나보았다.

태일정밀은 창립 2년만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磁性 薄膜디스크를 자체 개발했고 컴퓨터 헤드 생산에 있어서 미국의 AMC, 일본의 TDK와 더불어 세계 빅3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HEAD생산업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 IBM, 일본 후지쯔, 소니, 히타찌 등이 주요 거래선일만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기술 집약형 기업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아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인 우리 회사는 「기술개발 24시간 체제」를 슬로건으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매출액의 5%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공장을 연계해 엔지니어와 생산근로자가 함께 기술을 개발토록 하는 연구소형공장, 공장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동문은 90년 들어 부품생산을 확충하고 소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미국 CCT社의 국내 현지법인인 인포멕코리아社를 인수, 뉴맥스로 재출범시키고 미국의 마그네틱 소재 전문업체인 NMI社를 인수하는 한편 93년에는 중국 하얼빈에 雙太전자를 설립했다.

태일정밀은 컴퓨터 헤드뿐만 아니라 차세대 멀티미디어의 핵심부품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폴리스터社와 협력, 차세대 리튬이온전지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LINE을 구축중에 있다.

2천년 매출 5조원 목표

『2천년에 5조원의 매출을 달성, 세계적 종합정보통신기기 전문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아래 96년에 대구종합금융, 수원 남도산업, 대전 대륙흥업 등 3개社를 인수하여 금융 및 SOC분야에도 발을 넓히는가 하면 청주 민영방송(CBC)사업에도 뛰어드는 등 업종다각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태일정밀은 국내 14개社, 해외 9개社 등 모두 23개社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社로 발돋움했으며 85년 석탑산업훈장, 90년 철탑산업훈장, 91년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한데 이어 94년에는 전자산업진흥회가 주는 전자공업대상을 받았고 96년 「조세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첨단기술이 끝이 없는 만큼 신기술에의 도전도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는 의지속에서 세계 제일의 헤드업체를 꿈꾸는 鄭동문의 내일을 엿볼 수 있었다.

〈燮〉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96년 11월 19일~12월 15일·一般:96년 11월 16일~12월 15일〉

이 사

◇人文大學

▲이정희㉗영남대교수
▲정동영㉙국회의원

◇家政大學

▲김대년㉑서원대교수
▲박현순㉓KBS라디오국
▲서영숙㉕숙명여대교수
▲서혜경㉒전주대교수
▲이재연㉔숙명여대교수

◇看護大學

▲김금순㉒서울대교수
▲김종현㊸경복고교교사
▲서춘원㉚서울대병원
▲이성희㊵서대문시립병원
▲이정자㊺보훈병원간호부장
▲전양금㉑서울사대부중교사

◇工科大學

▲강대옥㊾LG전선이사
▲구영호㉖원영특수화학공업
▲김노수㊷서울대명예교수
▲김상회㊹태영석회대표이사
▲김영환㉗홍익대교수
▲김용근㊹스미토모기획실장
▲김재화㊻前한양개발상무
▲김재환㊼코오롱전무이사
▲김종찬㉑코아무역대표
▲김지섭㊽한전기공고문
▲김창식㊼오공산업회장
▲김창현㊵신화건축대표
▲김환길㊹(주)중앙기술
▲김효철㊹서울대교수
▲도철희㉗(주)삼탄이사
▲목영일㊵아주대교수
▲문석형㊹원자력안전기술원
▲박만식㊽충남대교수
▲박성현㊽서울대교수
▲박원준㉑테크&ENG대표
▲배상호㊽쌍용정유부사장
▲배창국㊼성동기술대표이사
▲서상철㉔바스프코리아이사
▲서용부㊺경방기획관리상무
▲서인원㊻성일콘트롤사장
▲성굉모㊺서울대교수
▲손진영㉕조인ENG대표
▲송문섭㉔삼성종합기술원
▲송선휴㉑前대한석탄공사
▲송재근㉑대진전기판매사장
▲송태근㊾소호무역대표이사
▲신재용㊹서울종합터미널
▲신재중㊺前서울산업대교수
▲안홍삼㉚前한성기업전무
▲양홍석㊼서울대명예교수
▲유기춘㉚한국종합개발기술
▲윤의병㊽삼진전기고문
▲윤종량㉑럭키ENG연구소
▲이 관㊸前경원대총장
▲이문형㊺대우전자대표이사
▲이민화㉖메디슨대표이사
▲이성규㊹삼원정밀금속사장
▲이윤식㊾시설안전기술공단
▲이익조㊻에이원대표이사
▲이종근㊷성암컨설팅사장
▲이중재㉑한전처장
▲이태형㉒태성실업사장
▲이필상㉒고려대교수
▲이해경㊼서울북공고교장
▲임종구㊽태광실업고문
▲전웅진㉚우진산업사장
▲정규상㊻(주)신성전무이사
▲정무조㉑한영산업대표이사
▲정석현㊺前서울지하철공사
▲조규완㊺삼부산업사사장
▲조기봉㊷진로비서실사장
▲조덕준㊽세경건설사장
▲조래승㊵아시아자동차
▲조병희㊵前동서석유화학
▲조정호㊾(주)코오롱전무
▲조택호㊺진흥정밀화학사장
▲지동범㊺한국제지부회장
▲진영무㊾대우자동차상무
▲하명수㊹前한국캬프레타
▲황규렬㊼삼정종합건축대표
▲황봉식㊺주경실업사장

◇農科大學

▲구자웅㉒전북대교수
▲김규환㊷前예산농업전문대
▲김석동㉚농진청작물시험장
▲김창수㊹성보화학상무이사
▲문준웅㊸미원음료대표이사
▲손병암㉓강원대교수
▲심영근㊸前서울대교수
▲심재익㊸충북제사회장
▲오세승㊼前경기개발공사
▲이병일㊸서울대교수
▲장석효㉔서울시도로국장
▲홍순홍㊹영진헬스관장

◇文理科大學

▲길승흠㊹국회의원
▲김경재㊹국회의원
▲김영배㊻중앙일보부국장
▲김용술㊻민주당마포갑지구
▲김용언㊺동서식품전무이사
▲김정남㊻前대통령비서관
▲김종하㊹국회의원
▲김홍철㊼한양대교수
▲남상진㊾조세금융연구소
▲노원욱㊾변호사
▲민현구㊹고려대교수
▲박봉식㊺前부산외대총장
▲박윤경㊵풍국화학공업사장
▲박지동㊼광주대교수
▲박홍규㊻외교안보연구원
▲손봉호㊶서울대교수
▲송재희㊸前동성중학교사
▲송한호㊵민족통일중앙協
▲신명범㊶
▲은무일㊺전북대교수
▲이계원㊸유공축구단단장
▲이덕주㊵BBC영어연구원
▲이두종㊶재)양영회이사장
▲이문희㊾한국일보주필
▲이민섭㊺동아그룹고문
▲이수용㊼연산건설대표이사
▲이재복㊵동양시멘트사장
▲이정수㊺통일연수원교수
▲이종렬㊵前장우산업사장
▲이태욱㊶서강대교수
▲장덕주㊾대한화재해상보험
▲장윤경㊻숙명여대교수
▲조영길㊷前한국관광공사
▲조철화㊵방송심의위원회
▲주순호㊵前2종교과서협회
▲하명희㊹연합통신전주지국
▲한만년㊾도서출판 일조각
▲홍종호㊻태진공영대표이사
▲홍치모㊻총신대교수
▲황인정㊽한국개발연구원

◇美術大學

▲김성태㊵前군산대교수
▲김재임㊵화가
▲김진태㊼대구교대교수
▲백현욱㊺인하대교수
▲유종민㊹중앙대교수
▲이춘기㊵전주대교수
▲임홍순㊴前이화여대교수
▲조성애㊽판화가

◇法科大學

▲강보현㉒변호사
▲강성구㊺재경원금융연구원
▲강승재㊶앰택코리아사장
▲강용구㊻변호사
▲고학봉㊹포스코개발사장
▲곽영철㉑창원지검차장검사
▲권경술㊼창원기능대교수
▲권기수㉗변호사
▲권영훈㊾변호사
▲권용희㊵前한보그룹이사
▲권혁채㊹한국중공업고문
▲김규칠㊾한국방송공사이사
▲김대권㉔변호사
▲김대식㊻대우증권이사
▲김대웅㊽성남지청차장검사
▲김대진㊸변호사
▲김문호㊼변호사
▲김문환㊾국민대교수
▲김상철㊽상진산업대표이사
▲김성수㊺변호사
▲김세훈㊽평안섬유회장
▲김영진㊷국회의원
▲김영훈㊵前한국조세연구원

▲김용섭㊼우신개발금융상무
▲김용화㊼호남대교수
▲김의재㊷국가보훈처장
▲김종태㊺전남방직감사
▲김창희㊻산업투자연구소
▲김현철㊸대한법률구조공단
▲노신영㊹롯데복지재단
▲문태길㊺변호사
▲박경희㊸한국투자회사협회
▲박상천㊷국회의원
▲박일재㊾은광학원이사장
▲박훤일㊺산업은행차장
▲배영길㊾한국지방자치硏
▲백남치㊽국회의원
▲서기석㊻정림건축상무이사
▲소순무㊹대법원재판연구관
▲소칠룡㊷변호사
▲손근석㊸포스코개발회장
▲송영욱㊻경성고무사장
▲신희택㊺변호사
▲양영태㊷변호사
▲엄낙용㊶재경원제2차관보
▲오헌진㊸변호사
▲우용환㊶기산상호신용금고
▲유길선㊷변호사
▲유은조㊹I.N.D대표이사
▲유재복㊼변호사
▲유종헌㊻대한제당이사
▲유효봉㊹변호사
▲육영진㊹제일은행검사부장
▲윤덕규㊶前군통신전자연합
▲윤동민㊼대전고검차장검사
▲윤상일㊼변호사
▲윤석용㊹미원통상사장
▲윤성태㊺의료보험연합회장
▲윤용호㊺변호사
▲이동명㊾대구지법김천지원
▲이범재㊷용민인터네셔널
▲이상돈㊹중앙대교수
▲이순종㊻(주)한화전무이사
▲이승환㊷장애인고용촉진公
▲이인기㊽변호사
▲이재웅㊺고려종합경제硏
▲이정남㊼신용보증기금
▲이진세㊸현대중공업부사장
▲이홍구㊸신한국당대표위원
▲임대규㊽변호사
▲임창군㊺前한국4H연맹
▲장준봉㊿서울할부금융사장
▲장창호㊼의정부지검검사
▲장항진㊹코러스ENG사장
▲전병덕㊶변호사
▲전재기㊷변호사
▲전화수㊸동양화재해상보험
▲정대권㊾변호사
▲정성철㊻
▲정영환㊼신용보증기금이사
▲정한상㊺부산일보대표이사
▲조동평㊺한전충남지사장
▲조병선㊶삼원철강상무이사
▲조봉균㊸교통관광방송단장
▲조수현㊹창원지법부장판사
▲조왕하㊺동양투금사장
▲조충환㊹한국타이어부사장
▲조헌발㊷변호사
▲지홍원㊹대구고법법원장
▲최기혁㊷중소기업銀부행장
▲한상술㊹서울전산학원장
▲허　균㊽체우공제회대표
▲홍정희㊶경찰공제회부장
▲황영선㊾변호사
▲황주명㊷변호사

◇師範大學

▲권청자㊲오윤학원이사장
▲김기곤㊻전주교대교수
▲김난수㊹광주대총장
▲김덕순㊸前명일여고교장
▲김삼열㊽신일중학교장
▲김종선㊿이화여대교수
▲문병학㊹보험감독원부원장
▲박진택㊸前대청중학교장
▲박희숙㊿한국교원대교수
▲배호순㊹서울여대교수
▲송문섭㊻서울대교수
▲송석근㊶강남대일학원강사
▲신란식㊺순천대교수
▲신충언㊼문화목재사장
▲오민수㊻한국자원연구소
▲오수량㊻서울시장학관
▲위성소㊹前영주시장
▲유병립㊻서울교대명예교수
▲윤덕중㊽경남대교수
▲윤상천㊶한화에너지전무
▲이병근㊽변호사
▲이석구㊻부산공고교장
▲이종면㊿서울과학교육원장
▲이한성㊼공항예식장사장
▲이형연㊼고려중학교장
▲임장규㊷난곡중학교장
▲임창규㊿상명여대부속여고
▲전성탁㊽춘천교대명예교수
▲조길준㊿서울과학고교장
▲최종옥㊽이화여고교장
▲황철수㊶前민주평통자문회

◇商科大學

▲강정구㊻태영화학전무이사
▲강호석㊻부일상호신용금고
▲고인석㊹삼양사전주공장장
▲곽　헌㊷우민상사대표이사
▲권태인㊹前한국종합기술公
▲권희택㊿안동버스사장
▲금창대㊸한국랜탈고문
▲김덕기㊻펜타항공대표이사
▲김민식㊹대구문화방송사장
▲김시렬㊷외환리스부사장
▲김용기㊷대구창업투자사장
▲김웅렬㊸유성기업사장
▲김정철㊹금호렌트카부장
▲김준경㊹한국ENG프라스틱
▲김홍준㊺수출입銀자금부장
▲남이현㊼세무사
▲문태갑㊹前체육진흥공단
▲박기종㊻국무총리행조실
▲박석태㊶제일은행상무
▲박영우㊹금산양행회장
▲박해룡㊸제일은행이사
▲배기수㊺대동은행상무이사
▲배순직㊻부산국민신용금고
▲변형윤㊶사)사회경제硏
▲서영교㊻T.S건설대표이사
▲서진석㊹화승실업대표이사
▲성홍제㊽태화항공해운사장
▲손희균㊺명지대명예교수
▲신인식㊹상업은행상무이사
▲양재수㊺공인회계사
▲엄재을㊹前동산식품회장
▲오한구㊼前국회의원
▲우용해㊶Y.H.WOO회장
▲유대진㊻前옥광상사대표
▲윤여탁㊶브링스코리아
▲이강수㊺前한국신용평가
▲이상학㊸제일銀과천지점장
▲이종용㊷(주)유공고문
▲이진설㊶안동대총장
▲이창수㊺관동대교수
▲이창희㊾前부산은행장
▲이철희㊶범우관세사무소
▲이현구㊺신세기투신사장
▲임재표㊷하남주유소사장
▲임종흥㊸신세계산업사장
▲정승재㊺前전북은행장
▲정재탁㊷신구전문대교수
▲정정태㊽삼아무역상무이사
▲정중기㊹증권예탁원사장
▲제환석㊹코오롱상사기조실
▲주경로㊺동주산업사장
▲최경국㊷대신증권사장
▲최수영㊽동아출판사전무
▲최운석㊼두산상사이사
▲최정호㊺대우자동차
▲최종인㊺두산상사대표이사
▲한수길㊻롯데제과부사장
▲홍사목㊷남서울관세사대표

◇獸醫科大學

▲나종극㊽스피드라인오토
▲배상호㊽국립동물검역소
▲소진극㊽노원동물병원장
▲최찬영㊸신진동물병원장

◇藥學大學

▲김길수㊺이화여대교수
▲김병철㊼신영과학상사대표
▲김영남㊻원주기독병원
▲김용정㊷은행약국
▲김장숙㊽前정무제2장관
▲김태현㊺부광약품이사
▲송창진㊽송원약품회장
▲엄기정㊿유한에스피제약
▲유재은㊺신유약국
▲이상섭㊹前서울대교수
▲이정준㊼KIST교수
▲이환달㊺한국유비씨(주)
▲임　철㊸임약국
▲정종한㊼정종한약국
▲조경일㊽명문제약회장
▲조철원㊸신강약국
▲주영현㊽前신갈약국
▲최덕일㊺국립환경연구원
▲한연식㊽새신흥약국

◇音樂大學

▲서경선㊹한양대교수
▲한상우㊷음악춘추편집인

◇醫科大學

▲권무일㊼경희대교수
▲권승락㊻권승락의원장
▲권이혁㊼녹십자명예회장
▲김상인㊺인천길병원장
▲김인호㊽내과의원장
▲김정현㊸김정현의원장
▲김찬옥㊹외과의원장
▲민병철㊷서울중앙병원장
▲민영옥㊿진주고려병원과장
▲배종화㊺경희대교수
▲백성룡㊷백성의원장
▲변종화㊻외과의원장
▲안동현㊾한양대교수
▲양영식㊼정형외과의원장
▲오용근㊾일신병원장
▲위정봉㊾
▲유영구㊻신경외과의원장
▲유원하㊻대한의학협회이사
▲이대규㊸민경산업대표이사
▲이도영㊾충무병원장
▲이동해㊶이비인후과의원장
▲이동호㊾한양대교수
▲이면상㊸제일방사선과원장
▲이명자㊹한양대교수
▲이명철㊸서울대교수
▲이병주㊼이병주의원장
▲이상문㊶소아과의원장
▲이상복㊾서울대교수
▲이상완㊶정형외과의원장
▲이상일㊸삼성의료원소아과
▲이우용㊶한국병원산부인과
▲이종현㊹산부인과의원장
▲이주탁㊽청구성심병원과장
▲이중근㊹가야병원내과과장
▲이필한㊸동암의원장
▲전하용㊾前삼육재활병원
▲정규병㊶고대안암병원
▲정창생㊻정창생의원장
▲최동수㊿내과의원장
▲최희옥㊼신경외과의원장
▲추광철㊻삼성병원
▲한홍무㊷동아대교수
▲허　훈㊿복음의원장
▲홍창의㊼중앙병원소아과
▲황준식㊷우리의원장

◇齒科大學

▲강석붕㊾강치과의원장
▲강영만㊶은성치과의원장
▲김계종㊻치과의원장
▲김관식㊷치과의원장
▲김길태㊶치과의원장
▲김동화㊿치과의원장
▲김병길㊸치과의원장
▲김여미㊿성북치과의원장
▲김용상㊼치과의원장
▲김원우㊻치과의원장
▲김종원㊶서울대교수
▲김희준㊽치과의원장
▲문복강㊽치과의원장
▲박기성㊾박치과의원장
▲박형기㊾치과의원장
▲손오영㊽치과의원장
▲송건일㊼송치과의원장
▲양후열㊿치과의원장
▲오용근㊹일신병원장
▲유재석㊹치과의원장
▲이건복㊾중앙치과의원장
▲이건섭㊽이치과의원장
▲이관섭㊼금호치과의원장
▲이승우㊶서울대교수
▲장홍수㊼치과의원장
▲전훈식㊺치과의원장
▲정해원㊿치과의원장
▲조성직㊽조치과의원장
▲차봉익㊺치과의원장
▲최순덕㊿동화치과의원장
▲최종운㊼치과의원장
▲한형진㊽치과의원장
▲홍병준㊷치과의원장
▲황영환㊹치과의원장

◇大學院

▲강명규㊾서울대교수
▲김규현㊺한일증권회장
▲우복주㊽제원정밀대표이사

◇經營大學院

▲이진원㊾前대한방직협회
▲전영길㊽한국컴퓨터기기

◇敎育大學院

▲송향섭㊻철도전문대교수

◇保健大學院

▲김경자㊷인천동구보건소장
▲노영근㊹신라병원장
▲배은상㊷고려대보건전문대
▲신효선㊶동국대교수
▲양광희㊹적십자看專교수
▲이양재㊷대한가족계획협회

◇司法大學院

▲김기현㊸변호사
▲신웅식㊻변호사
▲유순석㊹前법무부교정국장

◇新聞大學院

▲강민창㊿前치안부장
▲김태문㊸쌍용그룹사장
▲김태천㊿고려증권전무이사

◇行政大學院

▲김성규㊷동계유니버시아드
▲김진억㊻前국민리스부사장
▲박삼규㊿산업연구원위원
▲배문환㊺서울시설관리공단
▲이동훈㊷산업연구원고문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⑨국회의원
▲권노갑㉖국회의원
▲박정훈㉙국회의원
▲천용택㉛국회의원
▲허대범㉘국회의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이긍규⑨국회의원

◇국가정책과정

▲남평우㉛국회의원
▲이해구㊴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김기만㊺　▲김병철㊿
▲김연태㊺　▲김우형㊻
▲문철영㊷　▲민동홍㊶
▲박홍구㊾　▲손정희㊻
▲신용길㊻　▲양태종㊸
▲오창수㊼　▲유종목㊽
▲윤덕향㊻　▲이승종㊾
▲이주형㊹　▲이현식㊹
▲홍승기㊷

◇社會科學大學

▲권　일㊸　▲김갑동㊾
▲김관호㊺　▲김수호㊻
▲김용성㊾　▲김용수㊽
▲김진우㊶　▲김형일㊼
▲박　철㊻　▲박기영㊺
▲박운섭㊹　▲박정호㊼
▲박종환㊶　▲박해룡㊸
▲박희령㊹　▲서진욱㊻
▲선경래㊿　▲손재영㊿
▲오동헌㊼　▲유진룡㊾
▲이동귀㊿　▲이문태㊻
▲이석호㊺　▲이은호㊾
▲이종범㊽　▲장만철㊺
▲전병각㊸　▲조현진㊾
▲최학철㊾　▲홍성태㊾

▲황운철78

◇自然科學大學

▲강대승88 ▲권중걸90
▲김지희88 ▲김태진86
▲김해종94 ▲남창훈92
▲노도영85 ▲박성주76
▲박종욱76 ▲송 운92
▲신현철84 ▲심원준90
▲심종환83 ▲이기석89
▲이봉완87 ▲이영숙78
▲이윤생83 ▲이종섭77
▲이한용83 ▲이한용83
▲장찬동89 ▲정태식80
▲조석준77 ▲진 민82
▲한문섭84 ▲황성주92

◇家政大學

▲김혜경82 ▲류국영88
▲명복현60 ▲반영하89
▲백선자64 ▲서유미86
▲오광숙64 ▲은경자63
▲이신영62 ▲이영주60
▲이은희80 ▲이창배61
▲이혜영73 ▲장미영89
▲전정아95 ▲정광욱73
▲조정자65 ▲조현순86
▲조혜자64 ▲지금수60
▲홍계옥75

◇看護大學

▲김경남78 ▲이금라74
▲전봉선58 ▲최완희88
▲하양숙71 ▲홍여신54

◇經營大學

▲권영수79 ▲김갑주87
▲김영기77 ▲김영백86
▲김은철93 ▲김재백77
▲박정완95 ▲서명원88
▲윤재화95 ▲이상경86
▲이상완83 ▲임종영87
▲전성용91 ▲정현욱92
▲조용길80 ▲진보근94
▲최형근94

◇工科大學

▲감경찬75 ▲강명한59
▲강병원73 ▲강상규95
▲강신구57 ▲강완모92
▲강재수91 ▲강태환79
▲경신호59 ▲구만복84
▲구성형59 ▲권기득77
▲권승혁78 ▲권영민94
▲김건희73 ▲김경일88
▲김규홍95 ▲김기수89
▲김기준61 ▲김기현94
▲김남원81 ▲김남준93
▲김동수86 ▲김만기79
▲김범준95 ▲김병규80
▲김병두77 ▲김병수94
▲김상근78 ▲김상도82
▲김석수77 ▲김성문79
▲김성섭79 ▲김성우84
▲김성윤93 ▲김신원72
▲김안구73 ▲김영석91
▲김영섭76 ▲김용균86
▲김용창66 ▲김용철75
▲김용한69 ▲김원종89
▲김유성54 ▲김의수81
▲김인달74 ▲김인명62
▲김일환86 ▲김재철95
▲김재홍95 ▲김정원70
▲김종국65 ▲김종흡49
▲김지원79 ▲김창언71
▲김창호76 ▲김철빈71
▲김태균71 ▲김태훈96
▲김한길85 ▲김현근80
▲김현석91 ▲김형석75
▲김형준92 ▲김형집90
▲김호섭91 ▲김호수84
▲김홍구84 ▲김홍섭58
▲김효수91 ▲김홍수57
▲김희상76 ▲김희제56
▲김희준90 ▲김희창62
▲나경호76 ▲노중기81
▲노화준65 ▲류기수92
▲마상덕73 ▲목영동60
▲문규철73 ▲문희철72
▲민경호54 ▲박 헌95
▲박경진78 ▲박동문81
▲박민규91 ▲박민철52
▲박병일81 ▲박병현90
▲박상균73 ▲박상철69
▲박상학67 ▲박성훈80
▲박송우91 ▲박영일78
▲박영회94 ▲박원희55
▲박재서72 ▲박재성89
▲박종인78 ▲박준민63
▲박창주57 ▲박형규79
▲박형동88 ▲박희진94
▲방성훈89 ▲배광호72
▲배유한80 ▲배인호91
▲백세흡70 ▲백원석95
▲백창욱93 ▲변동필79
▲변명광95 ▲변영진70
▲변현우93 ▲서 구68
▲서대웅94 ▲서상현79
▲서성수93 ▲서세현96
▲서정인86 ▲서진호89
▲서태원95 ▲설순지93
▲성낙준57 ▲성낙현75
▲성정길76 ▲성진환95
▲소병흔73 ▲손영란95
▲손영진92 ▲송 진76
▲송대호72 ▲송호식73
▲신건일70 ▲신건학61
▲신상용94 ▲신승근64
▲신의섭90 ▲신준혁92
▲신중구55 ▲신창훈90
▲신형균90 ▲신형준96
▲심재수73 ▲심풍수80
▲안광렬68 ▲안광주63
▲안성우93 ▲안우희66
▲안중철70 ▲안호종81
▲안홍섭79 ▲양용규86
▲양인철68 ▲양종화77
▲어 준56 ▲어성준73
▲엄태윤85 ▲오경환94
▲오규환94 ▲오상윤92
▲오수경80 ▲오영두77
▲오형석93 ▲우복주63
▲위선주93 ▲유승화72
▲유승후95 ▲유우석79
▲유인상80 ▲유제원90
▲유충우65 ▲유화영92
▲육내승51 ▲윤봉한68
▲윤영재56 ▲윤일권94
▲윤재복57 ▲윤재현70
▲이 훈94 ▲이강주87
▲이경식93 ▲이관후91
▲이광욱68 ▲이광호80
▲이규영94 ▲이기설51
▲이기성82 ▲이대우68
▲이대혁91 ▲이도훈94
▲이동헌90 ▲이두호95
▲이범철67 ▲이상기65
▲이상일90 ▲이성률72
▲이성재79 ▲이승구83
▲이승도70 ▲이승률61
▲이승철93 ▲이여종73
▲이오연87 ▲이원호95
▲이장욱56 ▲이재규73
▲이재상91 ▲이재운67
▲이재일80 ▲이정묵58
▲이정준92 ▲이종무91
▲이중탁59 ▲이중호62
▲이찬식79 ▲이창석96
▲이창우80 ▲이태종90
▲이태준89 ▲이필한73
▲이현동93 ▲이현호94
▲이형석70 ▲이형승91
▲이효추84 ▲임미나90
▲임상호92 ▲임용웅67
▲임정렬92 ▲임지택92
▲장기복92 ▲장순홍76
▲장준원79 ▲장호진93
▲전배혁81 ▲전병곤94
▲전성열94 ▲전익성90
▲전중환57 ▲전홍우74
▲정광석75 ▲정광섭76
▲정민호76 ▲정민호95
▲정방언77 ▲정봉수63
▲정상열80 ▲정성우96
▲정세영90 ▲정순벽49
▲정연우94 ▲정연휘55
▲정영기80 ▲정우진64
▲정인기74 ▲정태규69
▲정평기94 ▲정해길69
▲조건홍65 ▲조남철66
▲조남혁61 ▲조대승85
▲조상진60 ▲조성준83
▲조성준94 ▲조성호91
▲조용환64 ▲조용훈77
▲조원호80 ▲조진호58
▲주상원73 ▲지태용55
▲차동춘67 ▲차석배63
▲차정만65 ▲천의영85
▲천인수73 ▲최광순92
▲최리노92 ▲최병국74
▲최상길55 ▲최상원91
▲최석영91 ▲최석윤76
▲최송학71 ▲최수한74
▲최양하73 ▲최영하88
▲최원준93 ▲최원준95
▲최윤일64 ▲최중현81
▲최찬호64 ▲최태선76
▲최흥민78 ▲최효병65
▲태두호53 ▲하동호90
▲하서용91 ▲하태권91
▲한동수83 ▲한원택79
▲허병구42 ▲허정행85
▲허환호81 ▲홍도천73
▲홍사우60 ▲홍영권82
▲황선국69 ▲황성혁65
▲황수정91 ▲황영삼81
▲황재희59 ▲황희규70

◇農科大學

▲강태현96 ▲김규래58
▲김동호86 ▲김병철79
▲김상철53 ▲김영기59
▲김영철63 ▲김영팔69
▲김재곤79 ▲김정기65
▲김종국65 ▲김창성88
▲김철순83 ▲김충정64
▲김혁화95 ▲노홍섭58
▲동 석85 ▲문동준77
▲민경진96 ▲박상현74
▲박승무58 ▲박신호58
▲박종현85 ▲박한수89
▲반성환55 ▲백양빈64
▲백운필56 ▲백운하37
▲서호석56 ▲송종익59
▲신기철78 ▲신준우56
▲신쾌승73 ▲안치일80
▲엄대식85 ▲오충일66
▲윤인수86 ▲윤종대70
▲이 홍61 ▲이경휘59
▲이관선58 ▲이기성53
▲이동훈95 ▲이만복60
▲이상옥62 ▲이석기67
▲이시규80 ▲이재근41
▲이진옥76 ▲이해종52
▲이형재65 ▲이희근69
▲전우방61 ▲정용화90
▲진경득85 ▲최은순82
▲태용문86 ▲한중석65
▲황건식67

◇文理科大學

▲권순식69 ▲권오관64
▲금병목73 ▲김광우75
▲김부남70 ▲김생기65
▲김영성66 ▲김영웅67
▲김용표72 ▲김인형70
▲김정환65 ▲김종환65
▲김중술59 ▲김판수61
▲남창우61 ▲노영일64
▲노태돈71 ▲노현희62
▲마은영74 ▲문희화60
▲박동수57 ▲박봉기66
▲박성관57 ▲박용환66
▲박우홍61 ▲박하진71
▲변종서59 ▲부유남67
▲송용진72 ▲송태호72
▲신경섭72 ▲안기문55
▲안효선74 ▲오세웅56
▲오홍자68 ▲원덕철75
▲원용문66 ▲유덕상72
▲육보근61 ▲윤덕중58
▲이만우57 ▲이명식69
▲이병혁71 ▲이세구66
▲이우연49 ▲이정림54
▲이종록47 ▲이종혁55
▲이철우63 ▲이해순63
▲이해정53 ▲이현숙73
▲이희열71 ▲임공례58
▲임승쾌70 ▲정 광66
▲정상렬63 ▲정익성61
▲정주년65 ▲정하룡52
▲조남홍62 ▲조동일66
▲조모형61 ▲조한무69
▲주명훈65 ▲천윤길71
▲한운사47 ▲홍기화60
▲홍순호66 ▲홍운경61
▲황봉운62 ▲황석영74

◇美術大學

▲김미숙87 ▲김서봉54
▲김영혜72 ▲김종철95
▲김혜림85 ▲배정숙78
▲신현중80 ▲심화자63
▲오수환72 ▲유제국63
▲윤석원69 ▲이동훈66
▲이성화70 ▲이영애70
▲이영자67 ▲이은화72
▲이정연75 ▲이종목83
▲이화지64 ▲정형민70
▲조미현80 ▲조봉구82
▲조여주81 ▲최충웅63
▲홍순무58 ▲홍승혜82
▲홍혜숙73

◇法科大學

▲강동진71 ▲강민형68
▲강석훈86 ▲곽영욱72
▲권영세81 ▲김동익57
▲김만기72 ▲김병수49
▲김상국81 ▲김상태70
▲김성진81 ▲김영철49
▲김인상79 ▲김정근34
▲김정수86 ▲김종철60
▲김종환69 ▲김창지60
▲문택상54 ▲박갑식88
▲박동서53 ▲박만수72
▲박용규77 ▲박재권62
▲박재윤69 ▲박정식56
▲박주환67 ▲박진호87
▲박찬홍84 ▲배무남65
▲배학철65 ▲변현철84
▲서택원60 ▲손영탁73
▲손익수70 ▲송개동87
▲송기복62 ▲송충섭58
▲신명중80 ▲신창민64
▲신현직77 ▲오장희56
▲오찬영89 ▲오홍주74
▲원윤묵60 ▲원은섭67
▲유기범65 ▲윤용남64
▲이근화76 ▲이대경81
▲이동근71 ▲이민재57
▲이상환82 ▲이일우64
▲이재형70 ▲이준상43
▲이철규70 ▲이현돈72
▲임동철72 ▲장성수58
▲정구환77 ▲정선숙63
▲정해균64 ▲조동욱63
▲조재호73 ▲조행숙51
▲주철주79 ▲진홍기83
▲차상필58 ▲최강섭82
▲최병규61 ▲최상관81
▲최영철65 ▲하영석82
▲한창호76 ▲한탁채57
▲홍정기82 ▲황덕남80
▲황환성42

◇師範大學

▲강경빈72 ▲권경홍39
▲김남득87 ▲김동길61
▲김동운68 ▲김두월32
▲김미선77 ▲김선주80
▲김성진92 ▲김신곤59
▲김옥진62 ▲김완복76
▲김용선57 ▲김일병69
▲김재성71 ▲김정란63
▲김정률55 ▲김종우58
▲김철웅70 ▲김학권61
▲김혜숙59 ▲김혜정95
▲문광식78 ▲문명희82
▲문용호69 ▲민경진75
▲민영문81 ▲박근화60
▲박동근62 ▲박영호69
▲박정수50 ▲박종률70
▲박춘식39 ▲박희순51
▲백경태75 ▲서성혁86
▲성본섭66 ▲성하경56
▲성하길40 ▲손성길56
▲송상순60 ▲송호열83
▲신웅철71 ▲신홍균57
▲심재석60 ▲안경화92
▲안덕자63 ▲안준천62
▲양태정46 ▲엄동일67
▲예원혜65 ▲오필석96
▲옥한석77 ▲왕세균72
▲유공선49 ▲유명로60
▲유민원64 ▲윤기영78
▲윤기정72 ▲윤동혁61
▲윤원강68 ▲윤재봉60
▲이규량65 ▲이기화57
▲이동규55 ▲이성규61
▲이시혁60 ▲이영빈68
▲이용덕71 ▲이용우59
▲이원교57 ▲이은구62
▲이의춘85 ▲이인배45
▲이장호60 ▲이점숙44
▲이종숙43 ▲이진무75
▲이창구60 ▲이창득75
▲이창민82 ▲이태웅75
▲이형표49 ▲이혜선68
▲이회운51 ▲이희성65
▲이희종55 ▲장기철71
▲전진하94 ▲정규두38
▲정상박58 ▲정순영41
▲정지웅62 ▲정태범64
▲진영일65 ▲최규봉55
▲최남신55 ▲최돈성57
▲한성홍77 ▲한인섭60
▲한정식59 ▲한종수71
▲허 숙73 ▲허관수61
▲허봉출42 ▲현병훈66
▲홍순관63 ▲홍승희58
▲홍영의63

◇商科大學

▲고광직55 ▲김명용64
▲김성호61 ▲김세우59
▲김영섭70 ▲김완수62
▲김용국69 ▲김종석63
▲김현섭63 ▲남대우64
▲노준찬70 ▲민형동75
▲박갑석57 ▲박정하69
▲변광현68 ▲서병한61
▲서정도70 ▲설성복69
▲성백승64 ▲신도온65
▲오길영42 ▲우홍식51
▲유춘상61 ▲윤명상71
▲윤지원65 ▲윤창의64
▲이경태70 ▲이기철61
▲이상윤66 ▲이수효72
▲이연형59 ▲이재웅66
▲이정식73 ▲이종오56
▲이춘원71 ▲장광명64
▲장기제67 ▲전종한72
▲정기홍69 ▲정두채53
▲정용호70 ▲정인묵48
▲정해운52 ▲조삼국66
▲조성일67 ▲조은구58
▲조정호60 ▲주영화48
▲주주섭64 ▲천남립66
▲최기동74 ▲최동호71
▲최성기62 ▲한덕수71
▲한상권58 ▲한영국54
▲한준석53 ▲홍관의59
▲홍사희51 ▲황상교57
▲황정길66

◇獸醫科大學

▲권호윤62 ▲김환경53
▲남상헌73 ▲박유순67
▲변승호68 ▲변훈달55
▲유희만75 ▲윤정희86
▲윤희정83 ▲이철우59

▲이충범㊾ ▲정 식㊷
▲정현규㊹

◇藥學大學

▲김기종㊺ ▲김수웅㊶
▲김영애㊷ ▲박명식㊷
▲박한규㊿ ▲박한일㊿
▲배윤도㊶ ▲신현우㊶
▲안구원㊽ ▲안성숙㊻
▲안종락㊷ ▲유훈철㊹
▲이보경㊿ ▲이재섭㊿
▲이한배㊿ ▲전준호㊹
▲정정희㊷ ▲한창식㊽

◇音樂大學

▲곽진용㊸ ▲김수혜㊹
▲김연경㊾ ▲김연희㊾
▲박종원㊼ ▲백승희㊾
▲백혜숙㊺ ▲서혜순㊿
▲신정숙㊿ ▲원영실㊷
▲유화자㊸ ▲장석용㊷
▲전동혁㊷ ▲정윤민㊺
▲조소현㊸ ▲조영남㊹
▲황성호㊽

◇醫科大學

▲강정후㊻ ▲고영채㊿
▲권영조㊷ ▲권오훈㊷
▲김법성㊹ ▲김봉식㊶
▲김성구㊷ ▲김창은㊶
▲김태규㊻ ▲김학순㊿
▲류백렬㊽ ▲문영규㊸
▲박국양㊶ ▲박상훈㊽
▲박세용㊷ ▲박양희㊻
▲박영일㊿ ▲서재열㊻
▲우영남㊼ ▲윤보현㊾
▲이 용㊶ ▲이병훈㊷
▲이석환㊾ ▲이제룡㊻
▲장규만㊺ ▲주권량㊻
▲주정균㊼ ▲지창수㊼
▲하태준㊹ ▲한형주㊷

◇齒科大學

▲곽성순㊼ ▲권기홍㊹
▲권오균㊸ ▲김 무㊽
▲김영식㊿ ▲김용선㊼
▲김은경㊶ ▲변광주㊷
▲심재진㊼ ▲엄보용㊶
▲유동환㊹ ▲유세익㊶
▲윤도철㊼ ▲이기송㊿
▲이장호㊶ ▲이재은㊽
▲이창영㊶ ▲이철민㊽
▲이희철㊶ ▲임명수㊹
▲장묘안㊿ ▲정옥균㊶
▲황정일㊿

◇大學院

▲김홍소㊼ ▲나기덕㊹
▲문희수㊹ ▲박영순㊼
▲박을룡㊾ ▲방인태㊹
▲양택선㊹ ▲유동준㊼
▲임순택㊺ ▲전진표㊽
▲정재일㊶ ▲주흥재㊸
▲지충수㊼ ▲최종수㊼
▲최종운㊻

◇經營大學院

▲김종인㊼ ▲정굉호㊿
▲조현국㊻ ▲한기룡㊹

◇敎育大學院

▲김기태㊿ ▲김익제㊻
▲신극범㊼ ▲이존희㊹

◇保健大學院

▲신기준㊼ ▲이경연㊻
▲이상훈㊿ ▲정효순㊹

◇新聞大學院

▲김우룡㊸

◇行政大學院

▲김경섭㊺ ▲박송규㊺
▲윤종화㊷ ▲정병철㊼

◇環境大學院

▲고성하㊼ ▲김배원㊸
▲박상우㊶ ▲정경상㊽
▲조덕호㊻ ▲조재훈㊽
▲최강림㊸

◇최고경영자과정

▲강봉희㊱ ▲고순복㉔
▲곽병구⑰ ▲곽열규㉚
▲구자정㉓ ▲권병식㉘
▲권병용㉟ ▲권석우⑮
▲권웅헌㉜ ▲권정윤㉛
▲금세환㊵ ▲기 옥㊵
▲김경환㉛ ▲김광석㊲
▲김광영㉕ ▲김교철㉕
▲김기택⑱ ▲김길현㉔
▲김두환⑰ ▲김명호㉜
▲김민원㉜ ▲김병두㉞
▲김병순④ ▲김선하㉝
▲김성규⑤ ▲김성철㊱
▲김성택㊴ ▲김시학㊵
▲김영재㊱ ▲김영조㉕
▲김영진㉛ ▲김영철㉟
▲김영철㊵ ▲김완수⑲
▲김윤동㉒ ▲김이환㊶
▲김인규⑥ ▲김재성⑲
▲김재운㉛ ▲김재준⑯
▲김정욱㉜ ▲김주훈⑲
▲김준영㉚ ▲김준호㊳
▲김중국⑨ ▲김천식㉗
▲김춘길㉜ ▲김효조㉒
▲김흥주㉕ ▲나의수㊳
▲남대현㉚ ▲남문우㉛
▲남석우㉟ ▲노석호㉚
▲노중호⑥ ▲문성주㊵
▲문영일㉖ ▲문재곤④
▲문정국㉛ ▲박 석㉕
▲박노선⑫ ▲박부일㊴
▲박상근㉘ ▲박세환㊴
▲박수남㉝ ▲박신지㉞
▲박용훈㉞ ▲박유재⑨
▲박장규㉑ ▲박재섭⑧
▲박재율㊱ ▲박정재⑰
▲박종현㉕ ▲박종훈㉞
▲박찬경㉟ ▲박청일㊴
▲박해주⑱ ▲박형주⑪
▲박희택⑥ ▲배운섭⑮
▲백규현㉕ ▲백복기㉙
▲백영배㉓ ▲백운광⑨
▲서 구㊶ ▲서근석⑯
▲서순화㉚ ▲서영웅㉑
▲선우영㊴ ▲성기백㉚
▲손상배㊵ ▲손정수⑥
▲손진영㉒ ▲손창수㊶
▲손희주⑬ ▲손기원㉘
▲손병균㉑ ▲송보열㉑
▲송준강㉝ ▲신말업㉞
▲신성우㉜ ▲신성택㊳
▲신영무㊲ ▲신현수⑱
▲심갑보③ ▲심계진㊱
▲안종표㊱ ▲양석태㊱
▲엄대용㉒ ▲오도영⑦
▲오동빈㉒ ▲오일택④
▲오희택① ▲옥기진㉑
▲옥치장㊶ ▲우국일⑧
▲우상우⑱ ▲원성중⑫
▲유근하㉜ ▲유병봉⑧
▲유병운㉓ ▲유병인㊲
▲유시종⑲ ▲유중근④
▲유진석㉜ ▲유하민㉕
▲유한섭㉓ ▲유희윤⑮
▲윤경원㉝ ▲윤기선㉝
▲윤석홍㉓ ▲은승기㊵
▲이 웅㉑ ▲이경봉㊳
▲이계섭㊵ ▲이균범⑯
▲이기상⑳ ▲이득호⑱
▲이문양㉛ ▲이병성②
▲이병재⑲ ▲이병정⑧
▲이병하⑳ ▲이봉훈㊵
▲이상온㉝ ▲이상윤⑤
▲이상은㉙ ▲이성길㉞
▲이성임㉞ ▲이성철⑫
▲이소동⑥ ▲이승권㉟
▲이승배㊲ ▲이승웅㉔
▲이연성⑦ ▲이영숙⑬
▲이영식㉛ ▲이영희㉚
▲이완근㉗ ▲이용곤㊳
▲이용남③ ▲이용덕㊳
▲이윤근② ▲이윤재㉙
▲이은수⑮ ▲이인정㉟
▲이정린㉝ ▲이정식⑬
▲이정희㊳ ▲이제인⑱
▲이종근㊵ ▲이종수㊶
▲이종연㉔ ▲이종훈㊳
▲이중근⑤ ▲이중아㊲
▲이중칠㉟ ▲이증삼㊵
▲이태섭⑤ ▲이태수㊵
▲이한규㉓ ▲이형팔㊳
▲이홍근㊶ ▲이희융⑬
▲이희평㉘ ▲임창섭⑭
▲장경작㉝ ▲장복진㉑
▲장석규② ▲장석린㉞
▲장재철㊴ ▲전경두㉓
▲전상기② ▲전우연⑳
▲전유승㊴ ▲전태성㉘
▲정균화㊱ ▲정달영⑧
▲정승태㉗ ▲정인영㊶
▲정장현㊵ ▲정장호⑭
▲정춘근③ ▲정필모②
▲정홍기㉚ ▲정환철㊴
▲조각래㉘ ▲조경용㊶
▲조경환⑫ ▲조두희㉙
▲조시남㊴ ▲조용호㊶
▲조헌제㊳ ▲주태홍㉑
▲진성섭⑩ ▲진재순㊱
▲진중배㉝ ▲진홍균⑨
▲진희구㉞ ▲채의승㊳
▲최영철⑳ ▲최오길㉙
▲최왕언㉓ ▲최재선⑨
▲최정헌⑤ ▲최종욱⑮
▲최청광㉖ ▲최학민㉑
▲피홍배㉛ ▲하정우⑮
▲한무남⑬ ▲한영수㉞
▲한철수㉒ ▲허덕행②
▲홍종대④ ▲홍희흠㉙
▲황국연② ▲황기호③
▲황승민㉖ ▲황학수㉗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병근⑩ ▲김달웅⑫
▲김동섭⑥ ▲김인수⑩
▲김형우⑧ ▲박평서⑪
▲신용하⑦ ▲염석훈⑦
▲유재필④ ▲이양우③
▲이초남⑫ ▲정운경⑥
▲정운길⑨ ▲조성락⑫
▲채규평③ ▲한강현⑫
▲한경철⑫ ▲홍운철⑫

◇고급금융과정

▲강현중⑦ ▲공지수⑦
▲권칠부④ ▲김우삼③
▲김원현⑥ ▲김정갑⑤
▲김정구⑥ ▲김홍기④
▲류창섭⑤ ▲문홍식⑤
▲민찬기③ ▲서갑석⑥
▲송광엽③ ▲신경양⑤
▲심충식③ ▲안종관①
▲유평규⑦ ▲윤진광⑥
▲윤홍식④ ▲이명준⑤
▲이병성① ▲이성재⑤
▲정원봉④ ▲진병천②
▲최승훈③ ▲허선구⑦
▲허윤도① ▲허채영①
▲홍성로⑤

◇국가정책과정

▲가겸노㊴ ▲강경보⑳
▲강광희㉘ ▲강승수㉛
▲강영석㊳ ▲구여회③
▲권영해⑮ ▲김경래⑱
▲김경수④ ▲김길원㉟
▲김명규㊴ ▲김병문㉓
▲김부근㉛ ▲김서환⑲
▲김성배㊲ ▲김성헌㊵
▲김연수⑯ ▲김영수㊴
▲김영일㊶ ▲김장원㊳
▲김종달① ▲김주학㉚
▲김창환② ▲김충한⑱
▲김태환㊳ ▲김해수㊱
▲김홍원㉟ ▲김황봉④
▲남상해㊲ ▲노희찬㉝
▲문영환㉑ ▲문장인⑤
▲박근태⑲ ▲박기철㊴
▲박동균⑤ ▲박만윤㊵
▲박상하㉘ ▲박신광㊵
▲박용태⑳ ▲박치현㉒
▲백석현⑳ ▲백영기㊴
▲변자섭㉘ ▲서동열⑳
▲서정권② ▲서정도㉟
▲성경순㉙ ▲손문창⑭
▲손정열㉞ ▲손진영⑫
▲손찬준㊵ ▲신대진㉒
▲신재욱㉑ ▲안성혁㊴
▲안신환㉞ ▲안영기㉚
▲안중기㊴ ▲안희수㉝
▲안희윤㉟ ▲엄길용⑪
▲오광협㊲ ▲오시철⑦
▲원정부㉛ ▲유동주㉘
▲유병국㉚ ▲유병봉①
▲유성종㉝ ▲윤대식⑩
▲이관표⑫ ▲이동배⑮
▲이상태㊶ ▲이양우㊱
▲이영숙⑰ ▲이영화⑪
▲이인재㊴ ▲이정구㉒
▲이종보㊶ ▲이종식㊶
▲이종택⑫ ▲이한용③
▲이항규㉘ ▲임 훈⑲
▲장경우㊱ ▲장보고㊴
▲전영배⑤ ▲전윤수㊴
▲전해성㉝ ▲정석균㊵
▲정승태㉚ ▲조병창㉛
▲조용안㉙ ▲조종익㊴
▲조홍제㊵ ▲최갑진㉜
▲최경헌㊶ ▲최남진㉞
▲최득록⑬ ▲최병길⑪
▲최순현㉜ ▲최원집㊴
▲최철호⑫ ▲하성환⑧
▲하용문㊲ ▲홍사임㊵
▲홍세기㉖ ▲홍한수㉝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개인에게 편리하고 동창회에 도움이 됩니다.

〈발급기간:96년 11월 1일~11월 30일〉

高學均(64년 農大卒)
모교 농대학장

尹美子(64년 美大卒)
중문민속촌 대표

尹友錫(67년 工大卒)
진성산업 대표이사

개 인

◇人文大學
▲문경훈㊻ ▲임재규㊹

◇社會科學大學
▲이명균㊽ ▲이병남㊸

◇自然科學大學
▲사대완㊷

◇家政大學
▲김혜라㊻

◇經營大學
▲임계현㊸

◇工科大學
▲김정후㊻ ▲김종성㊹
▲박경호㊷ ▲박진표㊺
▲손영진㊷ ▲신진국㊶
▲안주성㊹ ▲안철수㊾

▲윤태호㊻ ▲이동준㊺
▲이병환㊺ ▲이태권㊽
▲조재형㊹ ▲최재욱㊻
▲한두현㊸

◇農科大學
▲김 휘㊹ ▲이운규㊸

◇文理科大學
▲남대극㊼

◇法科大學
▲함석재㊸

◇師範大學
▲조헌민㊼

◇獸醫科大學
▲김길성㊹ ▲양한석㊹

◇藥學大學
▲고성규㊹ ▲고원규㊿

◇音樂大學

魏駿燁(72년 敎大院卒)
한알학원 이사장

▲정지은㊻

◇醫科大學
▲윤경애㊺

◇齒科大學
▲손 근㊶

◇大學院
▲이강수㊾

◇최고경영자과정
▲송장식㉞